

제3회 상호문화실천 워크숍

1. 일 시 : 2023년 2월 23일(목요일) 14:00 ~ 17:00
2. 장 소 : 인하대학교 서호관 308호실
3. 주 최 :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상호문화실천연구팀),
인하대학교 BK21FOUR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4. 후 원 : 한국연구재단(NRF), 인하대학교

인사말

14:00-14:10 김영순 교수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주제 발표

14:10-15:00 다문화사회와 상호문화역량
이병준 교수(부산대학교)

연구발표

15:00-15:30 상호문화 실천 이론정립을 위한 FGD연구
황해영(다문화융합연구소)

15:00-15:30 교육 기관으로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체성과 교육 프로그램 연구
오정미(다문화융합연구소)

질의응답

15:30~15:45 휴식

연구 발표

15:45-16:15 토픽모델링(LDA)을 활용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구동향 분석

김태훈·김은희(인천연구원)

15:45-16:15 가족센터 구성원 간 상호문화소통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김진선(인하대학교)

질의응답

16:15~ 총평: 김영순 교수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제3회 일반공동연구과제 상호문화실천 워크숍

1. 일 시 : 2023년 2월 23일(목요일) 14:00 ~ 17:00
2. 장 소 : 인하대학교 서호관 308호실
3. 주 최 :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상호문화실천연구팀),
인하대학교 BK21FOUR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4. 후 원 : 한국연구재단(NRF), 인하대학교

□ 워크숍 세부 일정

인사말	
14:00-14:10	김영순 교수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주제 발표	
14:10-15:00	다문화사회와 상호문화역량 이병준 교수(부산대학교)
연구발표	
15:00-15:30	상호문화 실천 이론정립을 위한 FGD연구 황해영(다문화융합연구소)
	교육 기관으로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체성과 교육 프로그램 연구 오정미(다문화융합연구소)
질의응답	
15:30~15:45	휴식
연구 발표	
15:45-16:15	토픽모델링(LDA)을 활용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구동향 분석 김태훈·김은희(인천연구원)
	가족센터 구성원 간 상호문화소통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김진선(인하대학교)
질의응답	
16:15~	총평: 김영순 교수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p>기초 강연</p>	<p>기초강연</p>
	<p>기초 이병준 다문화사회와 상호문화 역량 1</p>
<p>연구 발표</p>	<p>연구발표</p>
	<p>연구 01 황해영 상호문화 실천 이론정립을 위한 FGD연구 18</p>
	<p>연구 02 오정미 교육 기관으로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체성과 교육 프로그램 연구 42</p>
	<p>연구 03 김태훈 토픽모델링(LDA)을 활용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구동향 분석 52</p>
	<p>연구 04 김진선 가족센터 구성원 간 상호문화소통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73</p>

제3회
다문화사회와 상호문화실천 워크숍

주제발표

01
다문화 사회와 상호문화역량
이병준 | 부산대학교

다문화 사회와 상호문화 역량

발표자: 이 병 준

I. 서론

그간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많은 담론과 정책, 그리고 실천이 생겨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 관련된 이러한 논의들은 외국의 담론들의 수입,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 그리고 정책적 시행착오의 수정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나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사회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구성원들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사회는 이들 이주배경을 가진 집단들과의 문화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주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국사회에 적응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의 공존과 교류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사회는 이제 혼종의 문화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사회는 이들과의 서비스 접점에 서있는 많은 직업인들의 직업적 역량에 상호문화성이라는 철학이 녹아들어가야 할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 복지, 간호와 행정 등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상호문화적 역량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직업기초능력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성인교육을 통해 문화적 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어려움은 여전한 것 같다. 이제 미래사회는 갈수록 여러 인종, 민족이 뒤섞여 지내게 될 것이며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갖가지 오해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국내유입과 한국 사람의 해외진출은 매우 보편화 된 현상이며 다문화현상은 국제결혼, 노동 영역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현상은 매우 일상적이며 우리 가까이에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기업으로 알고 있는 다수의 기업은 실제 다국적 기업이다. 또한 대학의 캠퍼스에는 불과 십수년 전에 비해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외국 사람과의 대면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며, 다문화적 현상은 이미 우리의 삶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문화권에 대한 배타적 성향이 다소 존재하며 또한 문화적 역량을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체계와 문화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문화적 혼종상태가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으며 오히려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 그간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과거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변화해왔으며, 정부와 사회는 다문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문화현상을 기회로 돌리고자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문화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책추진체계, 인프라, 다문화교육의 방향, 중복사업 등 여러 문제가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문화에 관한 인식과 역량의 부족도 간과할 수 없다. 게다가 우리는 다문화주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맹신하면서 다문화주의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부족한 부분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와는 다른 상호문화주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관한 인정을 하는 반면 상호문화주의는 공통점을 찾아 겹침을 확대하는 실천으로 볼 수 있다(Abdallah-Pretceill, 2010). 다시 말해서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에 관한 인식에서 그치지만 상호문화주의는 보다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호문화주의에서 강조하는 상호문화역량은 다문화역량에 비해서 특정 문화적 관점에 의해 경계되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Kim & Ruben, 1992).

그러므로 상호문화역량은 문화적 우위를 가지지 않고 상호주관성을 넓힘으로써 상호간의 공통점을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겹침의 과정은 매우 실천적이며 해석의 과정이다(장한업,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문화역량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효과적이며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호문화의사소통역량으로 이해되기도 한다(Wiseman, 2001).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상호문화의사소통역량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모두를 포함하며 의사소통 과정에는 서로 간의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된다. 상호문화역량의 이러한 특성은 타자에 대한 인정을 강조하는 다문화역량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주관성과 상호문화성의 개념적 기반 위에 존재하는 상호문화주의와 관련된 상호문화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밝히는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전문가인터뷰 연구를 통해 상호문화역량연구를 위한 기초를 놓고자 한다.

II. 이론적 기초 : 상호문화주의

1. 상호문화주의의 개념

다문화적 현상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다문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다문화주의는 한국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우선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에 이주민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첫째, 다문화주의는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집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특성이 있다. 즉, 집단의 정체성이 개인의 정체성에 앞서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문화주의는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본다. 그래서 특정 문화에 속한 사람이 반드시 자신이 속한 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우리는 한 개인을 집단의 전형으로 이해되게 된다(예를 들어, 흔히 우리는 필리핀에 사는 어떤 특성을 가진 A로 이해하기보다 필리핀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둘째, 다문화주의는 차이를 바탕으로 소수집단을 사회적, 지리적 공간으로 구분한다(예를 들어, 차이나타운 등). 이렇게 집단을 범주화하는 태도는 소수집단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집단성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소수집단이 배제되고 이러한 이유로 거부라는 태도를 조장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소수집단은 자연스럽게 또한 동시에 분리되어 방치된다. 이러한 경계설정 은 소수집단이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는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다른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방해한다는 문제를 지닌다. 그리고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의 권리를 위해서 쿼터정책들이 진행됨에 따라 자국민들의 역차별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홍종열, 2012). 상호문화주의는 이와 다른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이라는 개념은 독일의 문화사회학자인 Simmel에서 시작되었다. Simmel은 일상화되는 이주현상에 대해 철학적, 인식론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특히 다양성의 인정을 강조했다. 그의 생각은 이후 미국에서 논의되었으나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미국은 다문화주의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70년대 상호문화주의는 다시 독일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유럽이 사회의 위원회가 사회제도의 구성과 확충을 위한 '상호문화적 선택'을 천명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상호문화주의가 확산되었다(장한업, 2014). 물론,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와 정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다. 두 개념 모두 당면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정책적 차원이 강조되는 반면 상호문화주의는 혼종의 문화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실천적 차원이 강조된다는 점에 차이가 두드러지게 된다. 상호문화주의는 중심들의 존재가 아닌 중심주의를 배제하고, 통일성 없는 통일을 지향하는 시각의 새로운 방향성이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Mall, 2010). 또한,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와는 달리 소수집단의 문화보다는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데(홍종열, 2012)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가 소수집단들의 문화를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표명한다. 즉, 상

호문화주의는 단지 그들의 문화를 정적으로 바라보는데서 벗어나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역동적인 관계로 본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한방향이 아닌 쌍방향이다. 다시 말해서 상호문화주의에서는 소수집단이 주류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류집단 역시 소수집단의 문화를 이해해야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에서는 소수집단을 배제했지만 상호문화주의에서는 배제의 악순환을 끊어내는데 노력한다. 사회일원으로써 그들을 인정하고 상호 간의 문화적 학습을 통해서 사회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그래서 상호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의 인정이 아닌 문화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혼종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 모두 사회변동으로 인한 다문화사회의 진입에 따른 기존 문화를 보는 관점에서 한발 나아간 문화적 인식이 기반 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두 개념은 안정과 변화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다문화주의는 목표지향적인 닫힌 체계로 ‘사회화’의 특성을 가지는 반면 상호문화주의는 과정 지향적인 열린 체계로 ‘교육’과 ‘학습’의 특성을 가진다. 또한, 다문화주의가 한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병존에 관심을 가진다면 상호문화주의는 이해에 바탕을 둔 문화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진다. 즉, 상호문화(interculture)에 붙는 접두사인 inter는 다문화(multiculture)의 multi와는 달리 이주자들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의 진행과정의 서술에서 더 나아가 상호작용을 통한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장한업, 2010).

2. 상호문화주의의 특성과 원리

상호문화주의는 상호주관성과 상호문화성의 개념을 핵심적인 이론적 기반으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으로, 주관성이란 특정 개인만이 어떠한 사물, 사건, 성질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인 반면 객관성은 누구라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개인들이 그것에 대해 합의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상호주관적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상호문화성은 현상학에 근거하고 있는데 현상학은 상호주관성의 문제를 중요시한다. 넓은 의미의 타자이든, 좁은 의미의 타자이든, 타자는 자신과 동질적인 존재로 바라본다. 그래야만 자신이 현상에 대해 바라보는 것이 올바르고 보편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과 타자가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로 본다는 것은 타자를 온전한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호주관성은 바로 상호문화주의에서 강조되는 원리가 된다(주광순, 2016). 둘째, 상호문화성은 문화들 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문화성은 다문화사회인 현재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며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문화성은 상호문화철학에 의해서 보다 정교해졌는데, 특히 상호문화성은 Mall에 의하면 문화들 간의 겹침으로 설명된다. 그는 모든 문화는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겹침의 부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부분으로 인해 문화들 간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유비적(analogous) 해석학으로 불리운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언제나 다시 수정하고 제한해야 하며,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최상의 길은 해석의 길이다.”(Mall, 2010) 상호문화성은 이러한 겹침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겹침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서서히 겹침의 부분을 넓혀 나갈 수 있다. 이처럼 겹치는 부분을 넓혀 가는 것은 낮선 것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는 것이고, 낮선 것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는 과정은 자기것과 점차 거리를 두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주광순, 2015). 이러한 관점은 Mall이 언급한 ‘생성된 장소에 묶여 있음-생성된 장소를 벗어나’와 같은 맥락이다. 즉, 생성된 장소에 묶여 있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단지 생성된 장소에 묶여 있기만 한다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상호문화에서는 개개인이 하나의 온전한 주체로 이해되며, 주체 간의 공정한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문화성은 상호문화주의에서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원리이다.

III. 문헌분석

1. 상호문화역량의 개념

전지구화의 가속화로 직업적 이주뿐만 아니라 일상적 이주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문화역량은 다문화역량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언뜻 이해되나 두 개념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다문화와 상호문화는 모두 사회의 문화적 다원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다문화역량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차이와 인정, 관용을 중시한 반면, 상호문화역량은 이에 덧붙여 대화와 소통까지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주광순, 2016). 즉, 상호문화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상호문화는 더 나아가서 다양성들이 서로 교차, 조우, 동행함으로써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계속 걸어감을 강조한다(Fornet-Batancourt, 2010).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유네스코에서는 소극적인 공존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집단들 간의 이해, 존중, 대화를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게 할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강조한다(UNESCO, 2006). 이렇듯 다문화는 다양한 배경의 문화를 인정하지만, 상호문화는 더 나아가 문화 간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역량은 주류집단과 이주민집단 간의 상호이해를 중시하는 반면 상호문화역량은 두 집단 서로 간의 인간으로서의 이해와 이를 위한 상호의사소통을 강조한다. 또한, 다문화역량은 정책적 차원에서 이주민집단에 관한 지원을 위해서 휴먼서비스 직업분야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상호문화역량은 직업영역을 포함한 전 생애의 시공간의 맥락에서의 역량을 강조한다.

이러한 상호문화역량은 학자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에 따라 개념적 차이가 존재한다. 상호문화역량은 상호문화의사소통역량(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문화횡단적 역량(Transcultural Competence), 문화간 역량(Crosscultural Competence), 국제적 역량(Global Competence) 등 여러 유사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상호문화역량이 여러 유사개념으로 불리는 데는 상호문화역량의 논의된 배경이 존재한다. 이전의 상호문화역량은 이민으로 인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최근에는 해외유학, 국제 비즈니스 등 외국인과의 교류가 매우 확대되면서 각 영역에 적합한 문화적 역량에 관한 연구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Sinicrope, Norris, & Watanabe, 2007).

초기의 상호문화역량 연구는 의사소통과 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외국인 또는 그 자녀들에게 보충교육을 진행하여 그들의 언어적 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외국인들이 자신의 국가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언어교육만으로는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이유로 상호문화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학습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었다.

즉, 언어 이외의 문화적 의사소통의 필요로 해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주관성이 기반이 되는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이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의 과정에는 두 화자를 필요로 하며 두 화자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경험한다는 이론적 전제를 설정하게 된다. 그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물체화하는 서로의 시선의 상호성을 수용하며 상대방을 화자의 지위를 가진 개인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De Carlo, 2011).

<표 1> 상호문화의사소통역량의 개념

이후로 상호문화역량은 상호문화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역량을 넘어서는 의사소통을 포함한 세계화 시대에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신념, 태도와 같은 가치와 더불어 실천까지 아우르게 된다(이민경,

학자명	상호문화 의사소통역량의 개념
Byram (1997)	사회적 맥락과 비언어적 차원의 의사소통을 반드시 이해하는 역량
Chen & Starosta (1999)	문화적으로 다양한 환경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
Wiseman (2001)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효과적이며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
Bennett (2008)	다양한 다른 문화의 맥락 안에서 효과적이며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지, 정서, 스킬, 특성의 총합
Lustig & Koester (2013)	다문화 대면 상황에서 서로 요구하는 다른 의미와 기대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 간 높은 수준의 소통 스킬

2014: 15).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문화역량은 상호문화의사소통 역량을 이미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다(Deardorff, 2004). 상호문화역량은 다문화역량과는 학문적 논의에서는 의식적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상호작용과 존중이라는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다(정기섭, 2011). 상호문화는 개인과 문화 간 만남의 과정에서 차이를 다루기 보다는 공통점을 찾아서, 공통점의 겹침을 확대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체로서 서로 존중을 해야 하고, 또한 만남의 과정은 주체간의 상호작용이 기반이 된다. 다시 말해서, 상호문화역량은 보편적인 인류로서의 존중과 개별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호작용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문화사회에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 상호문화역량의 개념

학자명	상호문화역량의 개념
정영근 (2001)	독특한 개별성을 지닌 각각의 문화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된 보편성을 향상하는 능력
정기섭(2011)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
UNESCO (2006)	다양한 문화들의 공존과 공정한 상호작용, 대화, 상호존중을 통해 공유된 문화적 표현을 만들어 낼 가능성
Bennett (2008)	다양한 다른 문화의 맥락 안에서 효과적이며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지, 정서, 스킬, 특성의 총합이다
Fornet-Batancourt (2010)	상호문화적으로 어울려 삶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화해된 다양성
Barrett et al. (2013)	시민성 함양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역량

2.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

상호문화역량은 매우 복잡한 상황들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는 대상집단의 문화에 대한 지식, 유연함과 같은 개인적 특성,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상호작용기술, 자기인식,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능력, 그리고 상황적 요인 등이 있다(Paige,1993). 때문에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학자의 관점에 따라서 상호문화역량의 강조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실천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맥락에 따라서 상호문화역량은 문화횡단적 역량, 문화간 역량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어서 그 구성요소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를 규명하는 학문적 노력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이 존재함을 문헌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상호문화역량 구성요소를 지식(K: Knowledge), 기술(S: Skill), 태도(A: Attitude) 또는 여기에 더 해서 인식(A: Awareness)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이러한 지식, 기술, 태도 및 인식의 범주를 활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우선, 상호문화역량을 KSA로 분류하는 연구에는 Wiseman, Chen & Starosta, Byram,

Pedersen, Deardorff, Council of Europe의 논의 등이 있다. Wiseman(2001)은 상호문화역량을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효과적이며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면서, 구성요소는 지식, 스킬, 태도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Chen & Starosta(1999)은 상호문화역량을 문화적으로 다양한 환경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 행동으로 정의하면서, 구성요소는 정서적 과정으로서 상호문화적 민감성, 인지적 과정으로서 상호문화적 인식, 행동적 과정으로서 상호문화적 노련함으로 구분했다. Byram(1997)은 상호문화역량은 사회적 맥락과 비언어적 차원의 의사소통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며, 지식, 스킬, 태도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특히, 지식과 스킬은 두 차원으로 나뉘어 총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나타난다. 지식은 사회적 집단의 사회적 프로세스와 다른 사람에 관한 지식과 자신과 비판적인 문화적 인식의 지식 두 가지로 정의했다. 특히 지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화의 실천과 생산을 평가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스킬 역시 이해되고 관계 맺는 스킬과 상호작용을 발견하는 스킬 두 가지로 정의했다. 태도는 자신을 상대화하여 자신의 가치, 믿음, 행동을 되돌아보고 또한 다른 사람의 가치, 믿음, 행동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으로 보았다. Pedersen(1994)은 상호문화역량은 발달단계에 기반하여 계속해서 학습해야 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의 발달단계는 인식의 단계, 지식의 단계, 스킬의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인식의 단계는 문화적 차이와 유사성에 대한 가정과 자신과 다른 문화의 관점 모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며, 둘째, 지식의 단계는 문화적으로 학습한 가정에 대한 정보를 확장한다. 셋째, 스킬의 단계는 가정과 정확한 지식을 명확하게 하는 단계이다. Deardorff(2006)는 상호문화역량을 지식, 스킬, 태도로 나누었으며, 지식에는 문화적 자기인식, 특정 문화 지식, 사회언어적 인식, 세계적 이슈와 추세 이해, 스킬에는 듣기, 관찰하기, 인내를 가지고 평가하기,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세계 보기, 태도에는 존중, 개방성, 호기심, 발견으로 역량군으로 정의하였다. Council of Europe(2012)은 상호문화역량을 태도, 지식, 스킬로 구분하였고 세부적으로 태도는 존경, 개방성, 호기심, 성찰, 협력 등 8가지, 지식은 차이, 편견, 문화의 영향력, 신념, 가치, 사회적 지식 등으로 이루어진 5가지, 스킬은 다원주의 수용, 다른 문화의 관점 발견, 다른 사람의 생각 이해, 인지적 유연성, 비판적 성찰, 언어적 기술 등으로 이루어진 7가지 역량군으로 정의되었다.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를 KSA로 구분한 연구는 역량의 구분을 기존 연구들이 취한 분류의 틀을 사용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상호문화역량 연구는 인간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기에 상호문화연구는 문화가 가지는 복잡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더해, 상호문화는 문화를 보다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변화무쌍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를 KSA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KSA로 분류한 상호문화역량은 의미상의 부정확성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때로는 상호문화역량이 지식, 스킬, 태도, 인식으로 구분됨으로써 역량요소 간 우열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연구자가 KSA라는 형식을 이용하지 않고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를 설정한 접근이 있다. Bennet(1993)은 상호문화역량을 발달모델로 개념화하였다. 그는 우선 상호문화적 민감성(intercultural sensitivity)이 문화적 차이에서 개인이 겪는 경험에 기반되며, 그것은 자문화중심주의의 세 단계인 부인, 방어, 최소화로 구성되며 이는 민족상대주의의 세 단계인 수용, 적용, 통합이 뒤따른다고 보았다. Bennet은 민족상대주의에서 공감이가 그 핵심으로 파악하였는데, 그는 공감을 자신의 문화에 의해 주어진 것로부터 다르게 현실을 경험하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Paige(1993)는 상호문화는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차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그 여섯 가지는 첫째로 대상 문화에 관한 지식, 둘째로 유연성, 관용, 개방성 등의 개인적 성격의 차원, 셋째로 의사소통과 같은 행동, 넷째로 자기믿음, 다섯째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여섯째로 상황적 맥락이다. 특히 paige의 연구는 기존 KSA로 상호문화역량을 구분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구성요소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으며, 다른 연구와는 달리 직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제시하였다. Lustig & Koester(2003)는 상호문화역량 구성요소를 존중, 이해지향, 감정이입(공감), 상호작용 관리, 과제역할행동, 상관적인 역할행동, 애매함의 관용, 상호작용의

자세로 구분하였다.

Lustig & Koester는 다른 연구자들과 달리 과제역할행동, 상호작용의 자세와 같은 독특한 역량군을 제시하였다. 상호문화역량평가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INCA(Inter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는 직업세계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문화역량을 연구하였다. INCA는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를 애매함의 관용(Tolerance for ambiguity), 행동의 유연성(Behavioral flexibility), 의사소통적인 인식(Communicative awareness), 지식의 발견(Knowledge discovery), 존중(Respect for otherness), 공감(Empathy)로 정의하고 다시 이를 KSA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애매함의 관용은 명확하지 않거나 애매함이 큰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며, 두 번째는 행동의 유연성은 자신이 생각과 다른 요구와 상황에도 자신의 행동을 적용시키는 능력이고, 세 번째는 의사소통적 인식은 언어적 관습, 자신과 다른 이야기,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협상 규칙 등이 다름을 인식하는 능력, 네 번째 지식의 발견은 문화 또는 문화적 실천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며, 다섯 번째 존중은 호기심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화에 대한 신념을 기꺼이 판단을 중지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로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생각, 동기, 생각이나 느낌을 스스로 투영하는 능력이다(INCA, 2004).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비교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직업영역에서의 상호문화역량연구이며,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의 상호문화역량연구이다. INCA의 연구는 직업세계 내의 다문화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호문화역량에 관한 연구가 상호문화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수행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일상생활에서의 상호문화역량연구는 문화관련 전문가, 실무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다. 그러나 상호문화역량연구는 문화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화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연구의 방향과 초점에 따라서 강조하는 역량군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이러한 선진사례연구는 동시에 한국적 상황에서의 비판적 검토를 요한다.

문헌분석의 결과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는 12개의 역량군으로 도출되었다. 연구자는 선행연구별로 제시된 구성요소의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여 유사 역량군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리된 12개의 상호문화 역량군은 존중, 자기인식, 타인의 관점으로 이해, 언어적 역량, 감정이입, 애매함의 관용, 탈중심성, 상호역량 관리, 문화적 지식, 비판적 사고, 개방심, 호기심이다.

IV. 전문가 초점집단연구

본 연구는 상호문화역량 구성요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헌분석후에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행동사건인터뷰(Behavioral Event Interview; BEI)와 함께 역량군을 도출하는데 효과적인 연구방법이다. 연구자는 상호문화역량의 대상집단이 특정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BEI보다는 FGI가 더 적합하다고(Spencer & Spencer, 2007) 판단하였다. FGI는 기본적으로 그룹 인터뷰에 해당되므로 그룹 내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른 연구방법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자료와 통찰을 얻는데 유용하다(Morgan, 2007). 우선, FGI를 진행하기 전에 문헌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상호문화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리하였는데, 상호문화역량은 학자마다 강조하는 바가 달랐다. 특히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학자는 상호문화의사소통역량으로 상호문화역량을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연구자는 문헌연구를 진행하면서 학자별, 주제별로 상호문화역량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FGI에 참여할 전문가 선정에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전문가집단은 첫째로 상호문화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교수, 연구자, 둘째로 상호문화역량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연구자로 선정하여 연구에 임하였다. FGI는 총 세 차례 진행되었는데, 1차 FGI는 2016년 7월 2일에 진행되었으며 상호문화역량의 일반적인 개념정의와 구성요소에 대해 논의하였다. 2차 FGI는 2016년 8월 4일에 진행되었으며 첫번째 FGI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에 집중하여

논의하였다. 3차 FGI는 2016년 8월 22일에 진행되었으며 1, 2차 FGI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보완 및 비판적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상호문화역량에 대해서 역량 및 역량군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역량은 수정 및 삭제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상호문화역량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표 3> 연구대상

	소속	직위	성명
1차 FGI	A대학	교수	김00
	B대학	교수	박00
	C대학	교수	정00
	A대학	연구원	이00
2차 FGI	D대학	교수	최00
	E대학	교수	유00
	F대학	교수	황00
	D대학	연구원	전00
3차 FGI	G대학	교수	이00
	H대학	교수	김00
	I대학	교수	정00
	J대학	교수	채00

1. 상호문화역량의 정의

상호문화는 주체가 자유로우면서 책임감 있는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보는 현상학에 근거한다. 주체는 자신이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주체성을 지닌 채 문화를 만들어낸다. 주체로서 개인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무한한 선택의 범주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지만, 각자 다른 습관, 가치관, 행동을 가지게 된다. 물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유지되지만 그 표현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Abdallah-Preteceille, 2010). 다시 말해서 상호문화의 관점에서 주체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위자이며 문화의 생성자이다. 이러한 관점은 소수문화, 민족의 사람을 관리, 처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는 다문화주의와는 큰 차이가 있다. 즉, 다문화주의는 주류 문화와 사회가 소수문화 집단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사회적 행위를 해준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소수문화 집단을 지원한다.

그러나 상호문화주의는 소수문화를 인정하는 범주를 넘어서서 나와 같은 인간으로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한다. 그래서 상호문화주의에서는 주류문화와 소수문화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고, 두 화자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De Carlo, 2011). 또한 의사소통과정은 두 화자의 상호주관성이 강조되며 결국 화자의 지위를 가진 인간이라는 공통점의 겹침이 발생하게 된다.

상호문화차원에서 겹침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 겹침을 확대시켜서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많음을 알고, 그게 인간의 존엄성을 알게 하는 거라서, 저는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찾는 것이 상호문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1차 FGI 김00)

다문화현상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를 이성적,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다문화역량(한현우·이병준, 2011)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호문화역량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상호문화역량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변화가능성이 있다. 인간은 계속 변화하며 매일 매일의 상호작용의 경험은 크든 작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Collins, 2009). 반복되는 상호작용경험은 하나의 의례로서 작용하면서 인간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가능성을 이끈다(Goffman, 1974). 이러한 차원에서 변화가능성이라는 인간의 특성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 특히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

문화역량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변화하는 과정으로 문화를 이해한다면 상호문화는 현재 진행 중이이라 할 수 있고 뚜렷한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규정한다면 상호문화는 아직 진행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차 FGI 최00)

둘째, 상호문화역량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차이를 받아들이는 자신에 대한 성찰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상무, 2015). 그러므로 상호문화역량은 주류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불평등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한 비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성찰은 상호문화역량의 다른 구성요소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역량으로 위치한다.

지배 권력이 가진 차별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 상호문화역량이 될 수 있다. (2차 FGI 최00)

교육 직업, 주거 등 다문화 인들이 누리는 삶이 주류사회의 권력, 불평등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당연하다 생각하며 양상하는 권력의 횡포를 이해함이 중요하다.(2차 FGI 유00)

상호문화와 다문화의 핵심적인 차이는 성찰성에 있다고 보여진다. 즉, 상호문화는 우리사회에서 비주류인 외국인이 가진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문화는 주류문화가 가진 지배적인 권력 그리고 비주류인 외국인이 가진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과 불평등에 관한 스스로의 성찰을 강조한다. 여기서 성찰은 상호문화역량의 다른 구성요소들의 기반이 되는 역량이다.

셋째, 상호문화역량은 주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 상호작용을 기반한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감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Fornet-Batancourt, 2010). 상호작용은 개인들 간의 공유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상호작용의 결과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Watier, 1994). 이러한 결과로 상호작용을 하는 주체들은 서로의 문화적 역량을 공유하게 되며 문화적 융합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다.

상호문화역량 구성요소를 차이, 나에 대해서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차이가 나온다. 그리고 차이에서 평등은 윤리성에서 나오는 리스펙트고 그런 윤리적 측면과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행위의 문제가 있고 이런 세 가지를 사용해서 나와 다른 문화적 언어적 다른 이질적인 상대방과 그런 걸 받아드리는. 새로운 문화적 조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 (...) (1차 FGI 박00)

상호문화라 하면 문화간 서로의 공유에 의해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어야 한다. (2차 FGI 최 00)

상호문화는 결국 인간에 관한 존중의 다른 표현이다. 차이는 언제든지 존재하며 공통점 역시 인간은 가지고 있다. 차이와 공통점은 우선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타인의 대한 이해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상호문화의 과정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적 행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것이 바로 상호문화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호문화역량은 다문화사회에서 개인과 사회가 타자를 차별적으로 배제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으로 개념정의 될 수 있다.

2.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

본 연구는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 문헌분석과 FGI를 진행하였다. 상호문화역량은 문화가 가지는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는 기존 역량 연구에서 강조하는 개인심리적 특성요인 중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상호문화역량은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과 함께 직업적 영역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상호문화역량은 상호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OECD에서 진행한 DeSeCo 프로젝트에서 결과로 제시한 핵심역량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점차 우리 사회는 복잡해짐으로 인해, 개인 간에 그리고 개인과 사회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직업적으로 다양하게 역량을 요구받게 된다. 그래서 과거 개인은 한가지의 우수한 역량으로 생활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다. 즉, 개인은 경계가 없는 때로는 매우 모호한 역량을 가져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문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복잡하고 심화된 측면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역량연구에서 주로 범주화 기준으로 삼은 KSA의 틀을 사용하지 않고 상호문화역량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FGI를 통해서 도출된 상호문화 역량군은 25개로 나타났다. 1, 2차 FGI는 문헌분석을 통해 정리된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에 대해 검토하였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한국의 상황적 맥락에 요구되어야할 상호문화역량 구성요소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는 공통점 인식, 차이인식, 존엄성, 자기문화 인식, 대인감지능력, 판단보류, 거리두기, 존중, 상황파악능력, 의사소통능력, 언어능력, 감정이입, 탈중심성, 마음챙김, 호기심, 신뢰, 특정문화지식, 자기평가, 상호작용을 위한 학습, 개방성, 언어적 역량, 토론역량, 유연성, 문화횡단성, 동정심이다. 그리고 3차 FGI에서는 문헌연구와 1, 2차 FGI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상호문화역량과 구성요소를 비판적으로 재검토 및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상호문화역량과 다문화역량과 비교분석하면서 상호문화역량에서 강조되어야할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기존 상호문화역량연구가 대부분 유럽과 북미의 연구자료임을 감안하여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역량군을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정심과 관용과 같은 문화적인 우열을 내포하는 역량군을 삭제하였고, 역량군별로 하위역량요소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역량은 총 8개의 역량군으로 의사소통, 갈등관리, 유연성, 민감성, 문화적 지식, 공감, 존중, 성찰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성찰은 모든 역량의 기반이 되는 중심적인 역량군으로 보았다.

상호문화역량의 첫 번째인 의사소통역량은 언어적, 비언어적 능력을 포괄하며, 의사소통적 상황을 인식, 파악하여 적절한 문화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언어가 매우 중요하다. 의사소통능력. 언어능력에 더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저는 언어가 중요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 (1차 FGI 박00)

개별적 인간의 존재 형식. 그니깐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 대화는 내 말에 다른 사람이 반응을 할 때, 마치 나는 다른 사람의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 (1차 FGI 정00)

의사소통은 주체가 객체를 만나는 과정이며 상호간의 동등한 위치가 담보되어야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서로 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행위이다. 상호문화역량의 두 번째인 갈등관리역량은 다문화적 상황으로 인한 갈등을 바람직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지식으로 대상에 대한 문제풀이식 지식은 있는데, 왜 이 지식을 갖는지, 왜 사고와 존재에 관련 있는지 생각하는 그런 게 (...) (1차 FGI 박00)

일반적으로 갈등은 극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상호문화적 상황에서 갈등은 해결이라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갈등관리역량은 문제풀이식 사고보다는 갈등이 만들어지는 상호간의 인식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다. 상호문화역량의 세 번째는 유연성이다. 유연성은 다문화적 상황에서 낯선 것을 침착하고 여유롭게 대처하는 능력이다.

자신의 판단을 보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 상황을 보고 빨리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니깐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1차 FGI 박00)

유연성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는 인식론적 사고이자 행위이다. 비록 자신이 낯설고 편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여유롭게 행동하며 더 나아가 타문화에 대한 편견적 사고와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판단을 잠시 멈추어 바라볼 여유가 필요하다. 상호문화역량의 네 번째는 민감성이다. 민감성은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예민하게 인식하는 능력이다.

제도적 차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별에까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2차 FGI 황00)

민감성은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문화의 사람에 대한 차별 뿐만 아니라 여론, 미디어 등에 교묘히 숨겨져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에도 관심을 가진다. 상호문화역량의 다섯번째는 문화적 지식이다. 문화적 지식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역량이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역시 타문화에 대해 고정화시킨 지식 상호문화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지식의 양이 많은 것이 중요하다고 비춰지는 것을 경계 해야 한다. (2차 FGI 최00)

문화적 지식은 다양성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문화적 지식의 양이 상호문화역량의 높고 낮음을 좌우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문화적 지식은 표면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해있는 지식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 상호문화역량의 여섯 번째 요소는 공감역량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그들이 느끼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느끼는 역량이다.

사람은 문화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다양성의 한 분야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1차 FGI 김00)

차이는 인식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훨씬 더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죠. (1차 FGI 박00)

이주민들을 동등한 권력을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평등적 시각이 필요하다. (2차 FGI 최00)

공감은 다른 사람의 문화적 행위를 마치 자신의 행위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감의 이면에는 모든 행위주체가 곧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 자신도 다른 문화에서는 소수문화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세계인류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다. 상호문화역량 요소의 일곱 번째는 존중이다. 존중은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귀하게 생각하는 역량이다.

존중이 추구하는 목표는 (...) 관통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인식이 중요하다. (2차 FGI 최00)

존중은 공감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차이는 인식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은 행위주체자로 인정할 때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존중은 쉽게 정의하기도 행위하기도 어렵다. 분명한 점은 존중은 다른 사람과 문화속에 관통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문화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존중이다. 상호문화역량의 여덟 번째 요소는 바로 성찰이다. 성찰은 자신의 생각과 행위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보는 역량이다.

주체와 객체에 대한 비판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의 상호역량이라고 생각한다 (...) '이러이러해야한 다'라고 주류사회가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나는 타자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성찰이 필요하다. 완전히 안다는 것 자체는 '권력에 바탕을 둔 잘못된 인식이기 때문에 (...) (2차 FGI 최00)

성찰은 다른 상호문화 역량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된다. 기본적으로 성찰은 주류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편견적 사고와 행위를 인식하는 차원에서 넘어서는 역량이다. 그래서 과연 나의 사고와 행위는 올바른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적 사고가 성찰이다. 이와 더불어, 성찰은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찰은 주체가 가진 사고와 행위의 틀 자체에 관한 반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다른 역량들을 관통하는 핵심이 된다.

V. 종합 : 상호문화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상호문화역량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항상 변화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사고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에 항상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상호문화역량은 변화무쌍해지고 있는 다문화적 현상에 대한 문제해결을 넘어서 문화적 혼종을 통해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적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문화역량을 구성하는 역량군은 성찰을 핵심으로 의사소통역량, 갈등관리역량, 유연성, 민감성, 문화적 지식, 공감, 존중 이상 여덟 가지로 정의되었다. 첫 번째, 의사소통역량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문화적 상황맥락을 인식하여 적절한 문화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 갈등관리역량은 다문화적 상황으로 인한 갈등을 바람직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세 번째, 유연성이다. 유연성은 다문화적 상황에서 낯선 것을 침착하고 여유롭게 대처하는 능력이다. 네 번째, 민감성이다. 민감성은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예민하게 인식하는 능력이다. 다섯 번째, 문화적 지식이다. 문화적 지식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역량이다. 여섯 번째, 공감역량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그들이 느끼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느끼는 역량이다. 일곱 번째, 존중이다. 존중은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귀하게 생각하는 역량이다. 여덟 번째, 성찰이다. 성찰은 자신의 생각과 행위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보는 역량이다. 이상의 상호문화역량 구성요소의 도출과정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

<표 4>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

문헌연구	존중 자기인식 타인의 관점으로 이해 언어적 역량 감정이입 애매함의 관용	탈중심성 상호역량관리 문화적 지식 비판적 사고 개방성 호기심		성찰 :거리두기, 판단보류 의사소통 :언어능력, 언어인식 상황과악, 감정인식 갈등관리 :상호작용을 위한 학습, 규칙인식, 대인감지 유연성 :개방성, 탈중심성 민감성 :호기심
	F G I	공통점 인식 차이인식 존엄성 자기문화 인식 대인감지능력 판단보류	거리두기 존중 상황과악능력 의사소통능력 언어능력 감정이입 문화횡단성	탈중심성 마음챙김 호기심 신뢰 특정문화지식 자기평가
				문화적 지식 :타문화에 대한 지식, 자기문화에 대한 지식 공감 :이해능력 존중 :존엄성, 신뢰

VI. 결론

한국은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서 사회 각 주체들이 다문화적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다문화교육을 개발하는 구체적인 준거가 부족했다(한현우·이병준, 2011). 이미 학교교육에서는 지식 전달에 기반한 교육이 변화하는 환경에 학생들을 적절히 적응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소경희·이상은·박정열, 2007). 특히 문화에 관한 교육은 문화가 가지는 본질적인 복잡성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지식 전달에 기반한 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 후반에는 다문화역량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함에 따라 역량에 기반한 교육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역량에 기반한 교육은 다문화주의가 가지는 논의의 한계를 분명히 가질 수 밖에 없다.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을 집단화하며 동시에 결핍이 있는 존재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핍모델에 기반한 다문화교육은 주체와 객체 간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존중보다는 온정주의적 태도와 교화적인 교육내용을 가진다(Holzbrecher, 2014). 연구자는 이러한 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상호문화역량에 기반한 교육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상호문화역량에 대한 기초연구는 상호문화교육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역량의 정의 및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 문헌분석, FGI를 거쳐서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우선, 상호문화역량은 다문화사회에서 개인이 사회와 자신이 지닌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변화하여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역량으로 정의되었다. 상호문화역량의 개념정의에는 세 가지가 특성이 고려되어 포함되었다. 첫 번째는 상호문화역량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변화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간의 주요 특성인 변화가능성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 특히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문화역량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두 번째는 상호문화역량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차이를 받아들이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성찰은 상호문화역량의 다른 구성요소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역량으로 위치지워진다. 세 번째는 상호문화역량은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상호작용을 하는 주체들은 서로의 문화적 역량을 공유하게 되며 문화적 융합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다.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는 성찰, 의사소통, 갈등관리, 유연성, 민감성, 문화적 지식, 공감, 존중 이상 여덟 가지 역량군으로 정의되었다. 도출된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는 우열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성찰이 다른 역량군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 고 문 헌]

- 김상무 (2015). 독일 상호문화교육정책의 현황과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29(1). 25-46.
- 소경희·이상은·박정열 (2007). 캐나다 퀘벡주 교육과정 개혁 사례 고찰: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가능성과 한계. *비교교육연구* 17(4). 105-128.
- 이민경 (2014). 대학평생교육으로서 다문화교육과정 방향성 고찰: 유럽상호문화역량학위(EDICC)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4(2). 1-35.
- 장한업 (2010). 유럽의 상호문화교육을 번역하고. *북리뷰*. *다문화교육연구* 3(2). 1-3.
- 장한업 (2014).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서울: 교육과학사.
- 정기섭 (201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본 상호문화역량. *교육의 이론과 실천*16(3). 133-149.
- 정영근 (2001). 세계화 시대 상호문화교육의 목표와 과제: 한국의 세계화교육에 대한 반성적 고찰. *한독교육학연구* 6(1). 1-20.
- 정영근 (2006). 상호문화교육의 일반교육학적 고찰. *교육철학* 37집. 29-42.
- 정영근 (2011). 독일 초등학교의 상호문화교육: 교육내용, 교수방법 및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천* 16(2). 55-77.
- 조상식 (2009).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교육의 한계. *교육철학* 44집. 139-155.
- 주광순 (2015). Mall의 유비적 해석학과 Gadamer의 철학적 해석학. *철학연구* 109호. 27-49.
- 주광순 (2016). 상호문화철학의 비전. 2016년 한국상호문화철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상호문화철학회. 25-39.
- 한현우·이병준 (2011). 다문화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6(2). 63-82.
- 홍종열 (2012). 유럽의 다문화사회와 상호문화교육에 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30. 383-411.
- Abdallah-Preteceille, M. (2010).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L')educaqtion interculturelle]. (장한업 역). 서울: 한올아카데미(원전은 1999년에 출판).
- Banks, J. (2008). *다문화교육 입문*(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th edition). (모경환 외 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원전은 2007년에 출판).
- Barrett et al. (2013).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e through Education*. Council of Europ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Bennett, J. (2008). Transformative training: Designing Programs for Culture Learning. In *Contemporary Leadership and Intercultural Competence: Understanding and Utilizing Cultural Diversity to build successful Organization*. ed. M. A. Moodian. 95-110. Thousand Oaks. CA: Sage.
- Byram, M. (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Chen, G. & Starosta, W. (1999). A Review of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Awareness. *Human Communication*, 2. 27-54.
- Council of Europe (2012). *Intercultural Competence for all. Preparation for living in a Heterogeneous World*. Council of Europe Pestalozzi. No.2.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De Carlo, M. (2011). *상호문화 이해하기* [L'intercultural]. (장한업 역). 서울: 한올아카데미(원전은 1998년에 출판).
- Deardorff, D. (2004). The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s a Student Outcome of Internationalization a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the

- United States.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Raleigh.
- Deardorff, D. (2006). The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s a Student Outcome of Internationalization a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0, 241-266.
- Fantini, A. (2007). *Explor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petence*.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George Warren Brown School of Social Work. Washington University.
- Fornet-Batancourt, R. (2010). *Zur interkulturellen Transformation der Philosophie in Lateinamerika*, Frankfurt am Main. London: Iko-Verlag.
- Holzbrecher, A. (2014). 상호문화교육의 이해 [Interkulturelle Pädagogik]. (정기섭 외역). 서울: 북코리아(원전은 2004년에 출판).
- Kim, Y. & Ruben, B. D. (1992). Intercultural Transformation. In W.B. Gudykunst & Y.Y. Kim (Eds.), *Readings on Communicating with Strangers: An Approach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pp. 401-414). New York: McGraw-Hill.
- Lustig, M. & Koester, J. (2013). *Intercultural Competenc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cross Cultures*. 7th edition. Pearson.
- Lustig, M. & Koester, J. (2013). *Intercultural Competence*. NJ: Pearson.
- Mall, R. (2010).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Was heisst 'aus interkultureller Sicht'?). (주광순 역). 상호문화 철학의 논리와 실천. 서울: 시와 진실. 49-72.
- Mall, R. (2010). 전통과 합리성. 상호문화철학에 관한 한 가지 관점. (주광순 역). 상호문화철학의 논리와 실천. 서울: 시와 진실. 73-114.
- Morgan, D. (2007). 질적 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김성재 외 역). 서울: 군자출판사(원전은 1996년에 출판).
- Paige, R. M. (Ed.). (1993).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 Sinicrope, C., Norris, J. & Watanabe, Y. (2007). Understand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petence: A Summary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Second Language Studies*, 26(1). 1-58.
- Spencer, L. & Spencer, S. (2007). *핵심역량모델의 개발과 활용*. [Competence at Work]. (민병모 외 역). 서울: PSI컨설팅(원전은 1993년에 출판).
- UNESCO (2006). 유네스코 상호문화교육 지침서. 유네스코.
- Wiseman, R. (2001).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Retrieved December 11, 2001 from <http://commfaculty.cullerton.edu/rwiseman/ICCCpaper.htm>

제3회
다문화사회와 상호문화실천 워크숍

연구발표

01
상호문화 실천 이론정립을 위한 FGD연구
황해영 | 다문화융합연구소

02
교육 기관으로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체성과
교육 프로그램 연구
오정미 | 다문화융합연구소

상호문화 실천의 개념 및 내용에 관한 FGD연구

발표자: 황해영

I. 연구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다인종·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해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상호문화 실천 이론을 정립하여 공존과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초연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상호문화 실천의 정의를 정립하고 상호문화 실천의 내용을 규명함으로써 상호문화 실천의 이론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상호문화 실천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인 다문화 상황에서 비롯된다. 국내에서도 다문화 현상의 가속화에 대해 정부와 여러 부처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문화사회의 사회문화적 긴장과 갈등, 충돌과 반감이 빠른 다문화 현상의 전개와 함께 더 많은 문제들을 양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민자와 이민자 수용국가의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를 모두 포함한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빠른 증가가 주류집단과 비주류집단 구성원들 간의 종교적·인종적·문화적 충돌, 문화정체성 갈등, 다문화사회에 대한 반감과 위기의식, 안보위협과 사회통합의 어려움 등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아지게 만든 것이다(Castles & Miller, 2009:1 참고).

상호문화주의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 문화충돌로 인해 유럽에서 벌어진 일련의 참혹한 유혈사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0년대 초반 유럽의 지도층 인사들과 학계가 앞을 다투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연이어 내놓게 했다(김형민, 이재호, 2017).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이 문화충돌과 사회균열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판단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의 학계로 하여금 이민자정책에 있어 새로운 논리와 담론을 모색하도록 이끌었다. 이 결과로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가 다문화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급부상했다(오정은, 2012:40; 최병두, 2014: 84). 국내에서도 급변하는 다문화 현상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교육적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중 유럽에서 먼저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적 교육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관한 인정을 하는 반면 상호문화주의는 공통점을 찾아 겹침을 확대하는 실천으로 볼 수 있다(Abdallah-Pretceill, 2010). 다시 말해서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에 관한 인식에서 그치지만 상호문화주의는 보다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이병준, 한현우, 2016)고 볼 수 있다.

상호문화주의에 대해 한국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내 다문화상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국 사회 이주민 숫자는 점점 늘어나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2,172,278명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2). 2006년부터 정부는 사회기조를 다문화사회로 선언하고, 법무부의 '이민정책포럼'을 필두로 2008년에 '다문화가정지원법'을 제정한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는 이듬해인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할 다문화정책의 기반이 될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새로이 발표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도 1차, 2차, 3차에 걸쳐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족정책 혹은

이주 노동자 정책이라는 두 갈래로 요약되는 양상한 등식만 남겼다는 비판을 받았다(강미옥, 2014). 국제적인 기조 역시 서구국가들의 다문화정책이 경기침체와 함께 실업을 증가 및 국가 재정 복지 혜택 감소로 인해 다문화정책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인 한국인 가운데서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혜택이 줄어든 만큼 외국인 이주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들이 늘어나면서, 반 이민정책 내지 외국인 혐오감정이 사회에 퍼지게 되어 한국인과 외국인 이주자 간의 감정적 골을 깊게 하였다(김민석, 2016).

다문화사회의 이러한 사회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계에서도 공존과 통합을 모색하는 다각적인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통하여 외국인 정책의 기조를 지난 10년간 정책과 차별성을 두고, 이민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병행한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법무부, 2018). 이러한 정책적 기조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복합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론보다는 개인, 사회, 국가의 상호문화 실천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게 된다.

이렇듯 상호문화 실천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 상호문화 실천의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도 상호문화 역량의 실천, 상호문화 교육의 실천, 소통의 실천 등 다양한 용어로 상호문화 실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혼용적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혼종적 문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상호문화 실천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천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것이다.

II. 상호문화 실천 이론 정립을 위한 중요 개념들

상호문화주의라는 용어는 1960년대 캐나다에서 퀘벡주 분리 독립을 요구했던 분리주의자들에 반대하면서 영국계 민족과 대등한 입장에서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프랑스계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들에 의하면, 상호문화주의는 다양한 민족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다른 민족의 고유문화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개방적 자세로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를 함의한다(오정은, 2012, 41). 상호문화는 개인이나 다른 문화집단이 성공적으로 융화되는 과정이다. 개인과 서로 다른 문화집단이 지향하는 의미가 양면성을 지니는 과정이고, 이러한 양면성이 하나의 의미로 통일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통이 일어나고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며, 적응과 교육과정과 같은 문화이식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주자가 이주를 하여 다른 문화권으로 옮겨 갈 경우 다른 인식체계, 사고, 감정, 행위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김태원, 2012).

Parekh는 사회통합에 있어서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문화들의 병렬적 수용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문화의 지향성을 다문화현상을 포괄하고 기존의 다문화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가 공동체와 개인 간의 대화 즉 그들이 서로 그들의 가치를 열고 다른 이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이론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Parekh, 2006). Parekh에게 다중적 가치들(plural values)에 대한 대화와 토론은 한 사회가 성공적인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한 기본적 토대로 인식되었다(김태원, 2012). Habermas는 자문화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상호문화적으로 매개된 공

동체 구성에 관심을 가진다. 특히 의식과 의식의 동일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전략을 넘어 언어가 갖는 상호문화성을 강조하면서 언어적으로 매개된 상호문화공동체 구성에 집중한다(김영필, 2013).

상호문화주의는 주류문화와 소수문화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고, 두 화자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De Carlo, 2011). 상호문화주의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상호주관성과 감정이입을 강조하는 후설의 현상학이나 대화를 강조하는 Habermas의 의사소통이론에 함의된 것으로 이해된다(최재식, 2006; 박인철, 2010; 김영필, 2012; 2013 등 참조). 상호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관계를 동적인 측면에서 인식한다. 따라서 상호문화주의에서, 문화란 동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문화는 서로 간섭함으로써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가 묵시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김태원, 2012). 즉 상호문화주의는 다양한 현상들의 소극적인 공존을 넘어서 그들 사이의 역동적 상호실천행위를 강조한다. Amin(2002)은 상호문화적 이해와 대화의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인종적, 민족적 관계에 관한 국가적 틀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 있지만, 국지적 수준에서는 차이에 관한 많은 타협들이 일상적 경험과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상호문화 실천은 만남을 전제로 하고, 이해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에 이르러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다양한 이론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상호문화주의에 접근한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상호문화교육은 윤리원칙과, 자유와 책임, 연대의식과 민족 간의 상호이해, 민주주의와 관용의 원리들을 준수하는 관점과 생활방식의 발달을 요구하는 학교 일반교육의 과제를 양심으로 인지하는 데서 실현된다(KMK, 1996: 5). 인간과 인간, 그리고 문화와 문화의 사이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상호문화교육이다(정영근, 2007: 262). 상호문화교육학은 교육학과 교육연구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간들의 공동 삶과 학습을 촉진해야 한다는 상호문화적 교육구상들과 접근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정기섭, 2020).

상호문화교육 외에도 상호문화역량, 상호문화감수성 등 개념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상호문화 역량은 다문화사회에서 개인이 사회와 자신이 지닌 올바르지 못한 생각(타자를 차별적으로 배제하는)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변화하여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역량(이병준, 한현우, 2016). 상호문화역량은 상호문화성에 대한 실천이고, 이러한 실천은 타자지향성이라는 윤리성을 내포한다. 상호문화적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은 “서로 관련을 맺는 문화적 차이를 구별하고 경험하는 능력”(Hammer et al., 2003: 422), “문화적 차이와 공통성을 인식하고 문화적 맥락에 맞게 행동을 조정하는 능력”(Hammer, 2011: 474)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 실천의 이론을 상호문화주의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행위적인 부분에서는 실천에 대한 이론과 연결하여 구성하고자 하였다. 실천 이론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Aristotles는 “이론은 ‘보는 것(seeing)’이나 ‘아는 것(knowing)’과 관련이 있는 반면, 실천은 ‘행하는 것(doing)’이나 ‘만드는 것(making)’과 관련이 있는 것”(Rorty, A. O, Oksenberg, A. R, 1980)으로 보았다. Marx는 학문은 이론적 태도에서만 생성하지 않고 실천과의 관계에서 성취된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세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인식과 실천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적으로

로 전개해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박종준, 2018 재인용). 인간은 자신의 생산 활동의 성립을 위한 전제이자 무대가 되는 물질적 조건 즉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안에 서의 실천을 통해 지식에 도달한다. Freire는 프락시스란 행동과 성찰의 변증법적 통일로 보고 프락시스는 행동에서 출발하여 성찰로 나아가야 하며, 행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의미 있고 가치있는 행동으로 이어져 가는 변증법적인 과정으로 보았다(김창환, 송훈섭, 2022). 즉 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객관적 실체를 깨닫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식만으로는 얻기 어려우며 행위자가 직접 행동에 참여할 때 얻어질 수 있다. 나아가 단순한 행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성찰을 병행해야만 참다운 의미의 프락시스가 될 수 있다(Freire, 1970; 남경태 역, 2002:83).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 실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 실천의 개념에 대한 논의들도 살펴보았다. Rorty는 사회적 실천이란 “특별한 종류의 언어적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공적이고, 사회적, 관습적인 이유나 기준에 의해 행해지며, 도구적이거나 실용적이고, 대화적인 사회적 실천을 가리킨다”(김동식, 1994:239)고 정의했다. MacIntyre(1997:277)는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고, 각각의 독특한 역사 속에서 규칙을 확립하고 있으며,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협동적 인간 활동의 복합적 형식을 사회적 실천으로 개념화하였다. Giddens(1982)의 사회적 실천은 주체의 탈중심화를 강조하고, 사회활동의 맥락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행위자의 성찰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끊임없는 자기참조적인 성찰적 모니터링을 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Bourdieu(1990)는 사회적 실천을 구조와 행위로 나누어지는 이원론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천에 초점을 두었다. Rouse(2007)는 사회적 실천의 개념을 구성원 각자의 행위와 그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 주관적인 규범적 판단을 통해 유지되는 안정적이면서도 적응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일련의 행동 패턴이라고 말한다.

문헌고찰을 통해 상호문화 실천의 개념정립을 위해서 상호문화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행위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실천의 이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호문화 실천의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FGD 기법

본 연구는 상호문화 실천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FGD 방법을 채택하였다. FGD 방법은 전문가 집단 토의(Focus Group Discussion)라 일컫는다. 이 방법은 집단 면접조사 방법론에 그 유래를 두고 있으며, 집단의 상호작용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이가옥, 장묘옥, 1993). 이 방법은 심층적 파악이 필요한 초점 주제에 관해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토의를 진행하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특히 탐색적 연구에 유용하다(김영순 외, 2018). FGD연구방법이 다른 질적 연구방법과 비교하여 더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연구자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 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2) 연구대상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기반하여 연구가설을 일반화할 필요가 있을 때, 3) 다른 연구 분야 및 연구

대상을 평가할 때, 4) 면접일정이나 설문 항목을 개발하고자 할 때, 5) 이전의 연구결과에 대한 참여자의 해석을 구하고자 할 때이다(Morgan, 2007). 따라서 전문가그룹 토의를 통해 상호문화실천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분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설계 초기단계부터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내부자문위원과 함께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수집 방법은 조성남(2006)이 제시한 FGD 자료수집 방법을 적용하였고, 연구의 목적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FGD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은 대체로 문제 관련 해당 분야 학술적 경험이나 경력, 직위나 직무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교수, 연구원, 박사, 장기간 경력, 자격증, 국가·사회 주요기관 소속 등)을 선정기준으로 정했다(박도순, 2020).

이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등재학술지에 상호문화에 대한 연구물을 2편이상 게재한 교수, 연구원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최초 설문지는 12명에게 개방형 설문을 보냈다. 수거된 설문은 모두 8부였고 관련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별도로 시간을 정하여 집단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은 총 6인이었고 이는 전문가들과 상호토론을 통한 합의점을 찾기에 적절한 인원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에는 이메일 자문과 토론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 들을 포함하였다.

<표 8> 전문가 패널 정보

구분	소속	직위	학위	연구분야	본 연구관련 연구기간
전문가 A	A대학	교수	박사	현대 도시의 사회문화 및 환경문제	18년
전문가 B	B대학	교수	박사	상호문화역량, 상호문화 실천, 상호문화철학	12년
전문가 C	C대학	교수	박사	비판적 교육학, 인종주의, 민주시민교육, 상호문화교육	10년
전문가 D	D대학	교수	박사	자국어 의사소통 교육, 상호문화적 감수성	10년
전문가 E	E대학	교수	박사	설화&상호문화교육	10년
전문가 F	A연구원	연구원	박사	상호문화교육, 다문화교육, 평화통일교육 등	6년
전문가 G	F대학	교수	박사	상호문화역량	10년
전문가 H	D대학	교수	박사	사회교육, 다문화교육	10년
전문가 I	D대학	교수	박사	문화변동, 문화인류학, 사회교육, 다문화교육	15년

이메일 자문서에는 선행연구를 통한 상호문화주의, 상호문화교육, 상호문화 역량, 상호문화 감수성, 실천이론, 사회적 실천 이론 등 선행연구로 제시하고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상호문화 실천 이론에 대한 정의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범주, 논의점에 대

해 기술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 수집된 내용은 정리하여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에게 발송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의 집단 토론 형식을 통하여 상호문화 실천의 이론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문가 토론은 온라인(ZOOM)을 활용하여 진행하였고 진행시간은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토론 내용은 녹화되었고, 토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다. 기록한 전사자료는 질적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범주화하여 크게 3개의 대범주로 구성하였다.

연구진은 전문가 패널 토론내용을 기반으로 상호문화 실천 이론에 대한 정의를 3가지 안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이메일 자문내용과 전사자료의 내용을 범주화하여 상호문화 실천의 개념을 3가지 차원으로 범주화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상호문화 실천 정의는 다시 이메일로 전문가 패널에게 적합성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고 수정의견을 확보함으로써 이론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론 정의에 대해 교육전공 및 융합전공 대학원생과 교수에게 설문지를 활용하여 내용에 대해 다각검증을 받았다.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자문방식과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9> 자문 일정 및 참여 전문가

	참여전문가	참여일자	방식
1차	A, B, C, D, E, F, G, H(8인)	22.09.22	이메일 자문
2차	A, B, C, E, F, I(6인)	22.10.12	온라인 ZOOM 토론
3차	A, B, C, D, E, F, H(7인)	22.11.08	이메일 자문
4차	대학원생 및 교수(11인)	22.11.24	구글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 자문이외에도 내부연구진의 수차례 워크숍을 통해 상호문화 실천의 개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개념과 영역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IV. 연구결과

1. 상호문화 실천의 정의

본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 토론 결과를 종합하여 상호문화 실천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상호문화 실천이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성찰을 통해 공존사회를 모색해가는 사회적 변혁운동이다.” 먼저 상호문화 실천의 개념 정립에 대한 중요성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고 흔히 이야기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주의로서 끝나고 그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실현되지 아니한 즉 실천이 결여되어 있는 주의였기 때문에 문제였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안으로서 상호문화주의가 나왔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호문화 실천이라는 개념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전문가 A).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 실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있어서 국제적인 다양성의 증폭 현상, 그에 반한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이해, 공감, 소통, 협력의 부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그동안의 다문화 정책과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상호문화 실천의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상호문화주의라는 것은 이제 이념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천은 그런 이념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세계 속에서 구현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구현되는 차원이라 할까 이렇게 그냥 정의를 저는 이제 어원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호문화주의를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실천하는 것입니다(전문가 I).

이처럼 상호문화주의가 구체적으로 실천적 행위로 드러남에 있어서 문화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성찰의 중요성, 그리고 권력의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상호문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문화 간의 접촉을 넘어서서 역동적으로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서로 상호 침투하면서 서로 간의 문화가 변형되는 것인 것으로 이해가 됐고요. 그런 논의에서 비판적 상호문화 이런 담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상호 문화 실천이라고 하면은 문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나 아니면은 현대사회에서 이 문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떠한 맥락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 문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문제시해서 이제 비판적인 그런 성찰을 하고 있고요(전문가 C).

순수한 외래 문화가 없듯이 결국 순수한 고유 문화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다문화 교육과 그러면 상호 문화 교육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kmk에서도 이제 1996년에 했던 내용들이 2013년에 이제 변화가 됐잖아요. 그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성찰이었던 것 같습니다(전문가 B).

결국 차이와 차별 배제가 존재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부터 상호문화 실천의 필요성이 드러나게 되고, 문화의 역동성은 외부의 정치·경제적 배경 속에서 주어졌기에 자원에 대한 배분 등에 대한 문제가 중요 토론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차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일상적인 삶 속에 존재하는 권력의 문제, 차별의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상호문화 실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상호문화 실천을 통해 공존 사회를 모색해 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상호 인정,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상호 소통하고 반성적인 성찰을 통해 사회 속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차별에 대처하는 행위양상인 것이다.

2. 상호문화 실천의 3가지 영역

국가 간 교류는 급증하였으며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개인, 사회, 국가 간 상호작용의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연구 또한 주목받게 되었다. 따라

서 상호문화 실천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개인적, 사회적, 초국가적 차원으로 드러나는 실천 양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문화 실천의 개념을 확장하고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 전문가 자문내용, 전문가 토론내용을 종합하여 상호문화 실천의 영역을 3가지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표 10> 상호문화 실천의 영역과 의미단위

상위범주	하위범주	주요 주제어
개인적 차원	인정과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민감성 • 문화적 다양성
	성찰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의 변화 • 반성적 성찰
	소통과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과 교류 • 배려와 환대
사회적 차원	이주민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권리 보장 • 문화 정체성 존중
	제도적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프로그램의 실행 • 정책적 보호와 지원
	사회적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배분 • 지역공동체 역할
초국적 차원	인류 보편의 가치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권리 존중 • 세계시민 정체성 형성
	국제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교류와 소통 •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기여

1) 개인적 차원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 실천의 개인적차원을 성찰, 인정, 존중, 소통, 배려 등 키워드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상호문화 실천의 개인적차원은 기존의 단일민족, 단일 문화 정체성에 대한 성찰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공존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상호소통과 배려를 실천하는 행위이다”.

상호문화 실천의 개인적 차원은 개인 내적 영역 속에서의 변화 및 성찰들이라고 할수 있다. 그 기저에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라는 감정이 깔려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역동성,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성찰과 변화를 통한 성장을 들 수 있다. 개인들은 개별적인 위치에서 인식의 변화, 반성적 성찰, 성찰적 실천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대처한다. 이런 것들이 성숙하게 드러날 때 비로소 개인적 차원의 교류와 배려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고 공공선의 내적 가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1) 인정과 존중

-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민감성이란 다문화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개인의 행동이나 기관의 활동으로 통합

하는 것이다(Wells, 2004). 그동안의 다문화교육, 다문화정책이 소수자 적응을 위한 복지 교육정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차별 배제와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은 다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중에 문화적 민감성은 바로 정주민인 다수자들이 보편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종차별적 태도와 발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특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수 집단의 사회 구성원들은 종종 의도하지 않아도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정상적', '일반적'인 것으로 당연하게 간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소수자의 차별 경험을 무시하거나 그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거나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전문가 A).

Bourdieu(2005)는 아비투스 개념을 통해 제안하는 행위이론은 대부분의 인간행위가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 다시 말해 후천적으로 획득된 성향들을 원리로 하고 있다고 말을 한다. 즉 아비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이 생성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상호문화 실천의 개인적 차원에서도 정주민의 문화적 민감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며 개인의 실천에 있어서 자신에게 체화되어 있는 문화적 편견, 차별적 언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상호문화 실천의 개인적 차원에 있어서 모든 행위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다.

- 문화의 다양성

상호문화의 개념은 문화적 다양성의 상호존중과 다른 문화를 알게 되면서 상호문화이해를 목표로 한다(홍은영, 2012). 문화다양성은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이자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UNESCO에서는 규정하였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존중과 인정을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문화다양성을 문화역동성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지적하였다.

문화 다양성이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차이에 대해 그 고유의 문화적 맥락 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 하위요소로는 행동 차이에 대한 존중, 가치 차이에 대한 존중,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의식적으로 상상하고, 자신의 관점을 내부자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전문가 D).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하면 일단은 문화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에서 문화가 역동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고 한 사회의 삶의 양식인데 그 양식이 고정적이지 않고 항상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러한 이런 단위와 다른 단위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 상호 침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상 전제로 어떤 상호문화라는 어떤 전제로 깔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전문가 I).

문화를 실천하는 주체가 어느 정도 그 사회의 배경과 구조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는 그것을 억압하는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부하고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냐라는 것이 문화의 역동성이 되겠습니다(전문가 C).

상호문화적 정신은 다원주의, 다양성, 차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 이처럼 문화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문화권력을 찾아내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로 나아가는 실천적인 행위양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성찰과 변화

- 인식의 변화

상호문화 실천은 구체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개개인의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행위양상으로 자원, 물질에 대한 불균등한 배분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포함하고 있었다.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회 변화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 I)

‘다른 문화’에 대한 인정이라는 표현에서 상호문화 실천이 다시금 문화라는 단어로 특정 개인을 주변화하고 타자화할 수 있다는 비판적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상징적 자원에 대한 불균등한 배분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상호문화 실천의 개인적 차원에 포함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왜냐하면 개인적 차원에서 상호문화 실천은 물질적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그때 사회적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주체 자신은 그러한 사회에 어떻게 연루되고 있는지에 비판적 통찰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전문가 C)

국제화 시대로의 변화는 국민의 인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자문화 중심주의, 민족주의 등 내재 되어 있는 가치관을 성찰을 통해 세계로 국제사회로 지구 공동체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반성적 성찰

전문가들은 상호문화 실천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행위양상으로 반성적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성찰에는 자신이 누리는 특권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야 하고, 사회 곳곳에 만연하는 드러나거나 은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행위에 대한 성찰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소수자 역시 성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이주민 집단에 대한 일반화된 편견을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특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수 집단의 사회 구성원들은 종종 의도하지 않아도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정상적’, ‘일반적’인 것으로 당연하게 간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소수자의 차별 경험을 무시하거나 그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거나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중략) 소수자 역시 인종주의를 사회 구조로서 파악하고, 자신이 내면화한 인종주의(예를 들어

사회적 정체성 내부의 차이를 배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전문가 C)

일상생활 속에서 타자를 차별적으로 배제하는 생각과 태도 및 행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다양한 문화적 실천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것(전문가 G)

개개인은 주류문화와 소수문화의 위계질서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통해 지배질서를 극복하고 동등한 만남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은 개인 간 또는 개인과 사회 사이의 끊임 없는 상호관계 속에서 살고 있고, 인류 공동의 인도적 가치는 ‘우리’라는 존재 양식을 대전제로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실천될 수 있다(박치완, 2018).

(3) 소통과 배려

- 소통과 교류

개인 간 소통은 일차적으로 정보 및 메시지의 전달, 교환 기능을 수행하지만, 소통 대상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정다운, 정성은, 장혜정, 2022).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사태로 외국인 혐오, 소외 계층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건강위기이자 소통과 정체성의 위기로도 이해할 수 있다(정의철, 2021). 특히, 소수집단은 차별적 표현에 맞서 ‘반박할 수 있는(Speaking back)’권리가 부재하다(홍성수, 2015). 따라서 수평적 관점에서 대화할 수 있는 소통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상호문화주의에서 상호문화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때 소통은 일방향성이 아닌 쌍방향성에 있다. 이를 위해 개인과 타자 간 혹은 주류문화와 소수문화 간의 수평적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호 소통 방안은 무엇일까?(전문가 H)

개인적인 차원에서 즉 인간 대 인간의 차원 주체와 주체의 차원 주체와 타자 간의 거리를 좁히고 타자를 환대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어떤 상호 문화 인터컬처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좀 들여다보아야 되고 그리고 상호 문화 실천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주목을 했습니다(전문가 I)

원주민과 외국인 이주자 간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언어의 차이(다양성) 존중과 모순됩니다.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방법은 감성의 공유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생활양식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전문가 A)

결국 실천의 핵심 주체들사이의 상호문화 소통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며, 언어적 소통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감성의 공유를 통한 공감 능력의 확장을 통해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초국가적 사회관계가 확대되는 오늘날 개인 간, 집단 간의 갈등 해결을 기대한다면, 타자와의 차이보다 동질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장혁준, 2019). 따라서 동질성에 대한 공감이 소통으로의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다.

- 배려와 환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다(Mayeroff, 1971). 배려의 윤리에 따르면 타인은 욕구에 의해 나를 필요로 하지만 나 역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배려해야 할 타인이 필요하다(김민영, 2022).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차이에 대한 배려는 성숙한 시민성을 키워나가는 필수조건이 된다.

개인이 어떤 실천을 할 것이냐라는 물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특정한 어떤 장소 내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어떤 실천이 필요한가라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한정된 공간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타자와 어떻게 공존할 공생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은 문화적인 어떤 상호 배려와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됩니다(전문가 A)

결국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즉 인간 대 인간의 차원 주체와 주체의 차원 주체와 타자 간의 거리를 좁히고 타자를 환대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어떤 상호 문화 인터컬처가 되는 거죠(전문가 I)

Kant(2005)는 어떤 인간도 특정 지역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방인은 더 이상 적이 아닌 동등한 존재로서 ‘환대의 권리’가진다고 했다. 인류 구성원의 보편적 권리로서 환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인류 공동체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방인에 대한 심각한 적대 행위들이 여전한 현실에서는 Kant식의 상호적이고 제한적인 권리로서의 환대를 정착시키는 일도 중요하다(장혁준, 2019). 따라서 배려와 환대를 통한 능동적 행위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주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 사회적 차원

상호문화 실천의 사회적 차원에 대하여 서로 다른 문화집단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 행위로 규정하고 제도적 주체들의 적극적인 실천 행위로 보편적 인권에 대한 보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자원의 배분, 교육, 복지 등 기회의 부여 등 행위를 상호문화 실천의 사회적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상호문화 실천의 사회적 차원은 서로 다른 문화집단 간의 능동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행위이다. 특히 사회의 제도적 주체들(지방 및 중앙 정부, 여타 관련 기관이나 조직들)이 이주집단의 보편적 인권과 기본적 필요를 위한 자원과 복지를 제공하고, 교육과 사회 참여를 위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공존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 행위이다.”

상호문화 실천의 사회적 차원의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주민집단을 위한 문화적 정체성 및 사회적 권리 보장, 그리고 이주민을 위한 복지 제공과 기회의 제공에 대해 중요하게 논의하였다. 또한, 제도적 주체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실질적 인식 개선과 혐오 차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원의 배분을 통해 이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규범적 공적인 자세를 통해 이주민과의 공존의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 차원의 상호문화 실천양상이 되겠다.

(1) 이주민 집단

- 사회적 권리 보장

일반적으로 사회적 권리에에는 근로의 권리, 기회의 평등, 건강서비스 자격, 복지혜택과 사회적 서비스, 높은 수준의 자유로운 교육 제공 등이 포함된다(Castele, 2000). 상호문화 실천을 위해서는 이주민 집단의 사회적 권리에 대해 보장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차원의 상호문화 실천이 될 수 있다.

사회공간적 소수자(특히 외국인 이주자)를 단순히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정책(동화주의)이 아니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주한 장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지역의 능동적(주체적) 주민으로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이들의 사회적 권리와 문화적 정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이들도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적 구성원임을 인정한다. 또한 이들이 이주해온 사회공간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자원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전문가 A)

서로 다른 문화집단들 간 능동적인 상호 (의사소통적 및 감성적) 교류를 통해, 타 집단(이주민 집단)의 문화와 정체성, 생활양식과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사회의 제도적 주체들(지방 및 중앙 정부, 여타 관련 기관이나 조직들)이 이주집단의 보편적 인권과 기본적 필요를 위한 자원과 복지를 제공하고, 교육과 사회 참여를 위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공존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 행위이다(전문가 A)

즉 이주민 집단의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수혜자격을 제한하는 공식적인 배제를 면밀히 살피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경제적 복지와 권리 보장 과도 긴밀하게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 문화 정체성 존중

모든 사람은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문화적 존재가 되어가며,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문화 속에서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며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배우고 실천하며(Fiske,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 특정 “민족문화집단의 일원으로 자기 자신을 범주화하고 동일시하는” 문화정체성(정진경, 양계민, 2004)을 구성해 나간다. Hu, Wang과 Li(2014)는 문화정체성을 다른 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개인의 문화적 자의식이라고 보았다. 집단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사회제도적인 존중은 바로 문화다양성 존중의 일환이기도 하다.

문화 다양성은 다문화교육에서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상호문화 실천도 상호문화교육과 연관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문화간 비교와 문화정체성은 중요한 키워드라 사료됩니다(전문가 E).

사회공간적 소수자(특히 외국인 이주자)를 단순히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정책(동화주의)이 아니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주한 장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지역의 능동

적(주체적) 주민으로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이들의 사회적 권리와 문화적 정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이들도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적 구성원임을 인정한다. 또한 이들이 이주해온 사회공간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자원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A).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출신국 언어를 한국어 촉진과 함께 계속해서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 이유는 글로벌화 된 세계에서 다양한 언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 H).

전문가들은 이주민들이 이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부분에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 보장을 위한 기본적 지원과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상호문화 실천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행위양상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출신국의 언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의 이중언어에 대한 지원 및 교육정책도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제도적 주체

-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상호문화 실천의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주민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정주민도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이주민들과의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민족 중심주의적 언행, 인종차별적 언어와 행동에 대한 지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인권적인 문제와 깊은 연관을 갖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는 태도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포함이 된다.

상호문화주의 관련 이론과 개념적 숙고가 차이와 권력 구조하에서 구현되고 시행되는 '사회적 실천'(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 상호작용, 학교 교육, 성인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복지, 청소년 상담, 미디어 담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문가 C)

프락시스 개념이 모순 없는 어떤 해결 아가 말씀드렸던 만병 통치 이런 의미보다 사회 운동 쪽도 있지만 이론을 적용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다시금 다른 한편으로 넓은 의미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행위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현하고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서 이렇게 실행하고 수행하고 실천하고 이런 의미에서 프락시스를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전문가 C)

상호문화교육과 다문화교육은 모두 문화적 다양성이 충돌과 분쟁의 영역이 되지 않도록 인정과 수용을 교육의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신용식, 2021). 따라서 교육 대상의 보편대상으로의 확대는 역시 상호문화 실천에서도 중요한 일환이다. 실천적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확대를 통한 상호문화 실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교육적 내용에 있어서 다름이 아닌 동질성에 기반한 내용의 확대를 통한 공감능력의 향상이 상호문화 실천 교육프로그램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정책적 보호와 지원

전문가들은 정책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상호문화교육의 정착, 이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적 마련, 차별금지에 대한 법적 규정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언하였다.

상호문화교육이 우리 사회의 학교법과 수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전문가 H)

사회공간적 소수자(특히 외국인 이주자)를 단순히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정책(동화주의)이 아니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주한 장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지역의 능동적(주체적) 주민으로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이들의 사회적 권리와 문화적 정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이들도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적 구성원임을 인정한다(전문가 A)

상호문화 실천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 문화적, 인종적 차이에 따른 차별 금지(다수자 대상), 소수자 보호 및 지원(전문가 D 이메일)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차원에서의 명확한 규정과 교유과정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이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상호작용

상호문화주의는 상이한 것들의 단순한 병존을 넘어서 그들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함축한다(최병두, 2014). Amin(2002)은 상호문화적 이해와 대화의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인종적, 민족적 관계에 관한 국가적 틀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 있지만, 국지적 수준에서는 차이에 관한 많은 타협들이 일상적 경험과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적 규범적 공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적 실천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규범적, 공적인 자세를 가지고, 각각의 독특한 사회 문화에 대한 차이를 긍정하면서 패러다임 내지 이데올로기의 토대가 되는 집단적 의식을 변혁하려는 의지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모든 행동.(전문가 F)

상호문화주의는 단지 그들의 문화를 정적으로 바라보는데서 벗어나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역동적인 관계로 본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한 방향이 아닌 쌍방향이다. 다시 말해서 상호문화주의에서는 소수집단이 주류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류집단 역시 소수집단의 문화를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이병준, 한현우, 2016).

- 자원의 배분

상호문화 실천의 사회적 차원의 실천을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하여 자원과 복지의 제공이 필수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다문화주의가 물질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의 문제를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면 상호문화 실천의 사회적 차원에서 는 곧 물질 자원의 배분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다문화주의 논쟁에서 중요하게 이제 제기되었던 물질적 자원의 배분과 이 어떤 필요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생존을 위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데 대한 어떤 배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전문가 A)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문화정체성에 대해 보장해주고, 기본적 자원과 복지,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전문가 C)

물질적 자원에 대한 교류와 배분은 개인적 차원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차원의 내용에 더 적합해 보입니다.(전문가 F)

이주의 시대,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고, 평화롭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기초인 자원이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자원에는 물질적, 교육적, 복지 등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분은 정책적 제도화를 통해 실천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공동체의 역할

전문가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부터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이를 토대로 지역에서의 외국인 주민들의 인권 신장과 복지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관주도적 지원체계가 아니라 풀뿌리 운동처럼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모아 정책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들이야 말로 상호문화 실천을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될 것이다.

사회적 차원(마을)의 경우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발성에 토대로 하기 때문에 협력정신, 공동체 행동에 기초한 공식적인 학교교육과의 연계, 서로서로를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동적, 참여적인 방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대상이므로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보다는 인권이 맞는 것 같습니다.(전문가 B)

이처럼 지역공동체를 통한 이주민집단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외국인 주민이 지역 모임 및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하여 상호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사회적 차원의 상호문화 실천이 되겠다.

3) 초국적 차원

상호문화 실천의 초국적 차원에 대해서는 국제적 이주자의 보편적 권리, 세계시민적 정체

성, 국제활동에 참여하고,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의 해소 등에 기여하는 실천적 행위양상을 상호문화 실천의 초국적 차원으로 규정하였다. “상호문화 실천의 초국적 차원은 인류 보편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권리를 존중하며, 세계시민적 정체성을 가지고 타문화권과 연계된 국제적 활동(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의 해소 국가 간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실천적 행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상호문화 실천의 초국적 차원에 있어서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 시민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인류 보편의 가치관 형성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러한 초국적 가치관과 정체성 시민의식의 형성을 기반으로 할수 있는 상호문화 실천의 초국적 차원의 행위양상으로 드러나면 국제적 교류와 소통,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기여하는 국제적 활동을 들 수 있다.

(1) 인류 보편의 가치관 형성

- 보편적 권리 존중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권이다. 인권이란 인간이 갖는 일반적인 권리이다. 상호문화 실천에서는 이를 넘어선 환대의 개념까지 확장하고자 한다. 칸트에 의하면 이주자가 가지는 환대의 권리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특정 정치 공동체로서 국가 주권 사이의 경계공간에서 발생한다(최병두, 2018).

사회적 소수자(이주자, 난민 등)들도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야 할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와 인권을 가진다는 점을 천명하고, 이를 명시하는 주요 원칙들을 마련하여 개별 국가나 지역(사회)들이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이들이 자유롭게 이주하고 이주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별 국가나 지역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를 개별 국가나 지역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전문가 A)

즉 이주의 권리와 이주국에서 환대를 받을 권리는 마땅히 국가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 세계시민 정체성 형성

이주와 이민 규모의 확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에서 대응하기 위해 대안적 시민성 개념으로 세계시민에 주목한다. Habermas는 세계시민이란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시민이라고 규정하며 그들로 구성된 세계시민사회의 등장과 그들 사이의 연대를 이상사회로 보고 있다(Habermas, 1998). 즉 세계화시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사회로의 진입을 말하고자 한다.

지구촌의 세계시민성 함양은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생태체계임을 코로나를 통해 더욱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세계시민’의식과 인류 존엄성 실현과 인권 존중의 실천을 위한 연대는 인권,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기초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전문가 B)

세계 시민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단일 문화권의 사회적 관계에 고립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모든 생명들과 연결된 존재라는 인식과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지구적인 실천과 함께 세계의 문화를 변혁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전문가 F)

다양한 문화집단들 간의 공통적인 초국가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여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통해 공통의 정치문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보편적인 인권, 불평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다문화현상의 가속화로 인한 이주민과 정주민의 갈등에 있어서도 서로 세계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창조해 나가는 것이 상호문화 실천의 초국적 영역에서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과의 동일시를 통해 형성하기 보다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 속에서 선택과 재결합을 통해 국가, 민족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글로벌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국제적 활동

- 국제적 교류와 소통

상호문화 실천의 초국적 차원에서의 활동들은 국제적 교류와 소통이 있다. 그 전제로 자유로운 이주에 대한 보장, 불평등의 해소, 문화에 대한 존중, 타민족과 연계한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의 참여들이 실제 행위양상으로 표출될 것이다.

타민족과 연계한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 이주민과 소통 및 협력,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동참(전문가 E)

상호문화 실천은 상호문화 실천 자체와 주체 자신이 착취와 혜택이라는 세계사회의 상호의존적 관계와 불평등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그러한 세계사회의 지배 상태에 개입하는 것이다(전문가 C)

민간과 공공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국제적 교류와 소통, 그리고 실천에서 문화간의 존중을 기반한 자유롭고 유연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실천행위(전문가 G)

지역 수준에서 세계 수준까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지구촌이라는 인식,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 관계 등 전 지구적 상호의존이 보편적 실재라는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전문가 H)

상호문화철학은 현실을 기술하는데에 머물지 않고 현실의 변화를 지향하는 강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학문이라는 점(최현덕, 2009)을 고려해 볼 때 실제 실천에 있어서 이러한 공동체 활동, 지속가능한 지구발전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들의 역할과 참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기여

지구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전 지구적 상호 연관성 의식’은 인류라는 보편적 범주를 중요한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게 한다(장혁준, 2019). 인류애와 인간 존엄성은 급속한 세계화의 변화 속에서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국가 간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적 이주자(난민 포함)들의 보편적 권리를 존중하며, 이들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고, 세계시민적 정체성을 가지고 타민족과 연계된 국제적 활동(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의 해소 및 비자발적 국제 이주의 예방에 기여하는 실천적 행동을 말한다. (전문가 A)

차별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차별이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고 작용하는 그런 차별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세계 사회에서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세계적 불평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고려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중략)이때 유의할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지구적 차원 혹은 초국적 차원으로 넘어가면 보편적 인권 문제를 나오게 됩니다(중략) 상호 문화 실천은 상호문화 실천 자체와 주체 자신이 착취와 혜택이라는 세계사회의 상호의존적 관계와 불평등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그러한 세계 사회의 지배 상태에 개입하는 것이다. (전문가 C)

전문가들은 민족국가의 국가시민적 연대를 초월하여 전 지구적 체제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제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관심과 비판에서 벗어나 직접 개입하고, 참여하는 실천적인 행위양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상호문화 실천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내용을 확장시키고자 전문가 FGD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 토론 결과를 종합하여 상호문화 실천의 이론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영역을 개인적, 사회적, 초국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상호문화 실천은 상호문화 철학에 기반을 두고 현실을 개혁하려는 실천적 행동이다. 상호문화 철학이란, 학자들에 따라 그 문제의식과 강조점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공통분모를 찾아본다면, 대체로 “서구 철학이 지닌 자족적 태도, 서구철학을 보편 철학(philosophia perennis) 그 자체로 간주하면서 자기 우월 의식으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상적 전통을 대상화시키고 그들의 주체적 철학적 목소리를 배제해 온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다양한 문화 속의 사유 전통들이 함께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참여하여 새로운 대안적 보편성을 담지하는” 진정한 세계 철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획으로 정의를 해 볼 수 있다(최현덕, 2006). 상호문화 실천은 상호문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실천적 행동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iddens(1982)에 의하면 사회적 실천은 주체의 탈중심화를 강조하고, 사회활동의 맥락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행위자의 성찰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끊임없는 자기참조적인 성찰적 모니터링을 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론적 기반을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에 두고, 소극적인 공존을 넘어 적극적인 의사소통 행위 및 성찰을 통한 반성 그리고 조정을 통해 공존사회를 향한 사회적 변혁운동으로 규정하였다. 이밖에도 상호문화 실천의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존을 위한 세계 시민적 정체성 형성의 중요성, 및 행위에서 소통 배려에 대한 부분도 강조하였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보편적 권리를 넘어선 환대 받을 권리로 까지 논의를 확장하였고, 균등한 기회 부여를 통한 사회적 갈등 방지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국적 차원에서는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 해소에도 관심을 갖고 이주의 자유에 대한 논의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는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 토론을 통해 상호문화 실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각 영역별 개념을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 실천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다루어야 할지 등 문제에 대해 최초로 개념정의를 시도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과정에서 상호문화 실천이라는 개념이 쉽게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적이고 복잡하고 변화다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개성이 너무 뚜렷하고 적당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았다. 때문에 연구진은 수차례의 워크숍과 논의, 문헌분석 내용과 상호 검토를 통하여 최대한 많은 내용을 상호문화 실천이라는 개념에 녹여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되는 내용이나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함을 인정한다. 이상의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국내에서 상호문화 실천의 개념정의를 시도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 상호문화 실천의 개념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논쟁을 통해 이 개념이 더 정교화되고 확장되고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호문화 실천의 개개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미옥. (2014).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 상상너머
- 권태일. (2008).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의 영향요인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식. (1994). 문제표상과 컴퓨터 학습 프로그램. 교육공학연구, 9(1), 27-40.
- 김민석. (2016).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국내 다문화 정책: 캄보디아 출신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사례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393-401.
- 김민영. (2022). 배려 윤리의 비판적 고찰. 철학연구, 49-70.
- 김영순, 윤현희, 이영희. (2018). FGD 활용 교육 선진국의 미래 교육 동향 탐색. 열린교육 연구, 26, 1-21.
- 김영필. (2012). '한국 (지역) 맞춤형' 다문화가족 모형을 지향하며. 철학논총, 69, 43-61.
- 김영필. (2013).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의 상호문화주의적 함의: '한국적' 다문화교육모형 구축을 위한 하나의 대안. 철학논총, 71, 3-27.
- 김영필 (2013).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의 상호문화주의적 함의. 哲學論叢, 71(1), 3-27.
- 김창환, 송훈섭. (2022). 프레이리의 프락시스 개념이 지리수업에 주는 함의. 한국지리학회지, 11(1), 15-27.
- 김태원. (2012).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유럽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탐색. 유럽사회문화, 9, 179-213.
- 김형민, 이재호. (2017). 유럽의 상호문화주의. 시민인문학, 32(-), 9-39.
- 박도순, 2020 교육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박인철, 상호문화성과 윤리 - 후설 현상학을 중심으로, 철학, 제103집, 한국 철학회, 2010, pp.133-134.
- 박종준. (2018). 행정질서벌의 체계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46(3), 107-134.
- 박치완(2018). 4차 산업혁명에서 4차 공유혁명으로. 동서철학연구, 87, 321-346.
- 법무부(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이민정책연구원(2021).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21 법무부 용역보고서
- 오정은, 유럽의 상호문화정책 연구: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6(1),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2, 38~62쪽.
- 이가옥, 장묘옥. (1993). 주제별 집단토의 방법론 (Focus Group Discussion). 보건사회논집, 13(1), 84-98.
- 이병준, 한현우, 2016 상호문화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1(6). 1-24
- 장혁준(2019). 68운동 이후 대안적 시민성의 철학적 성립기반으로서 보편적 권리화. Homo Migrans. 20. 64-113.
- 정기섭,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본 상호문화역량, 교육의 이론과 실천 16(3), 한독교육학회, 2011, 133~149쪽.
- 정다운, 정성은, 장혜정. (2022). 팬데믹 시기의 대인 소통과 관계 친밀감 변화. 한국소통학보, 21(1), 203-252.

- 정영근, 상호문화교육의 일반교육학적 고찰, *교육철학* 37, 한국교육철학회, 2006, 29~42.
- 정의철. (2021). 감염병 위기 속 '시민됨'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성찰: 불평등에 맞선 '보건소통연구'의 역할 탐색. *커뮤니케이션 이론*, 17(2), 171-222.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조성남. (2006). 노인부모부양에 관한 기혼자녀세대의 인식: 초점집단토론 (FGD)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3), 139-157.
- 최병두. (2014). 상호문화주의로의 전환과 상호문화도시 정책. *현대사회와 다문화*, 14(1), 83-118.
- 최병두 (2018). 초국적 이주와 환대의 지리학. *푸른길*
- 최재식. (2006). 상호문화성의 현상학: 문화중심주의를 넘어 상호문화성으로. *현상학과 현대철학*, 30, 1-30.
- 최재식. (2017).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철학적 이해 - 현상학적 측면에서 본 상호문화주의 철학 -. *시민인문학*, 32(-), 72-106.
- 최현덕. (2009). 경계와 상호문화성: 상호문화 철학의 기본 과제. *코기토*, (66), 301-329.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2) 2022년 9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한현숙 2009:9
- 홍성수 (2015).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 대안의 모색. <법과 사회>, 통권 50호, 287-336.
- 홍은영. (2012). 포스트식민적 관점에서 본 상호문화교육. *교육의 이론과 실천*, 17(1), 143-162.
- Abdallah-Pretceill, 2010 마르틴 압달라-프렛세이,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장한업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 Anderson, H. (1997). *Conversation, language, and possibilities: A postmodern approach to therapy*. Basic Books.
- Bourdieu, P. (1990). *The logic of practice*. Stanfo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2005). *Principles of an economic anthropology*. *The handbook of economic sociology*, 2, 75-89.
- Castles, S. (2000). Underclass or exclusion: social citizenship for ethnic minorities. *Citizenship, community and democracy*, 22-44.
- Castles, S., & Miller, M. J. (2009). *Mi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10.
- De Carlo, M. (2011). *상호문화 이해하기(L'interculturel)*. (장한업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원전은 1998년에 출판).
- Fiske, A. P.,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 Freire, (1970) *페даго지*. 남경태 역, 2002. 그린비
- Giddens, A. (1982). Power, the dialectic of control and class structuration. In *Profiles and critiques in social theory* (pp. 197-214). Palgrave, London.
- Gordon, T. J. (1994). The delphi method. *Futures research methodology*, 2(3),

1-30.

- Habermas, J. (1998). On the pragmatics of communication. MIT press.
- Hammer, M. R., Bennett, M. J., & Wiseman, R. (2003).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4), 421-443.
- Hu, F. W., Wang, P., & Li, L. J. (2014). Psychometric structure of the Chinese Multiethnic Adolescent Cultural Identity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26(4), 1356-1368.
- Kant, I.,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정초(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Foundations of Metaphysics of Morals)』 (서울: 아카넷, 1785/2005).
- KMK(1996). Empfehlung "Interkulturelle Bildung und Erziehung in der Schule": www.ewik.de/coremedia/generator/ewik/de/Downloads/Dokumente/Interkulturelles_20Lernen_20in_20der_20Schule_2C_201996.pdf
- MacIntyre, A. (1997). The Virtues, the Unity of a Human Life, and the Concept of a Tradition. *Memory, identity, community: The idea of narrative in the human sciences*, 241-263.
- Milton Mayeroff, On Caring, New York: Harper & Row 1971
- Morgan, D. L. (2007). Paradigms lost and pragmatism regained: Methodological implications of combin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Journal of mixed methods research*, 1(1), 48-76.
- Parekh, Bhikhu, "Europe, liberalism and the 'Muslim question,'" in Tariq Modood, Anna Triandafyllidou and Ricard Zapata-Barrero, *Multiculturalism, Muslims and Citizenship: A European Approach*, London: Routledge, 2006.
- Rorty, A. O., & Oksenberg, A. R. (Eds.). (1980). *Essays on Aristotle's ethics* (No. 2). Univ of California Press.
- Rouse, J. (2007). Practice theory. In *Philosophy of anthropology and sociology* (pp. 639-681). North-Holland.
- Rowe, G., & Wright, G. (2001). Expert opinions in forecasting: the role of the Delphi technique. In *Principles of forecasting* (pp. 125-144). Springer, Boston, MA.
- Wells, M. I. (2004). Beyond cultural comperence: A medel for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cultural development. *J community Health Nurs* 17(4), 189-199.



교육 기관으로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체성과 교육 프로그램 연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술지 연구를 바탕으로-

오정미, 문희진

목차

1. 서론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
 - 2.1. 지역 센터별 프로그램 현황과 특성
 - 2.2. 교육 사례별 프로그램 현황과 특성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 3.1. 다양한 내용의 고급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 3.2.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 3.3. 이주민 의견을 수렴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결론

1. 서론-연구배경

- 2008년에 80개소로 시작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에 140개소, 2016년에 217개소, 22년 1월에는 230개소까지 지속적인 확장을 보이며 사회통합을 돕는 한국의 대표 기관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이다.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가족센터에서는 상담과 심리 지원, 법률 자문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다양한 목표를 가진 ‘교육 프로그램’이 가족지원센터의 중요한 정체성이 되어 가족센터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의 대표 기관으로 만들었다.

1. 서론-연구목적

- 가족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주민을 위한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가족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서론-연구목적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학술지 논문을 검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지에 발간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검색

하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화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교육'이었으며, 검색결과 RISS 18편, KISS 63편, DBpia 228편으로 총 249편이 검색되었다.

둘. 중복되는 논문이거나 원문 확인이 어려운 논문은 제외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한 내용으로 분석되지 않은 연구도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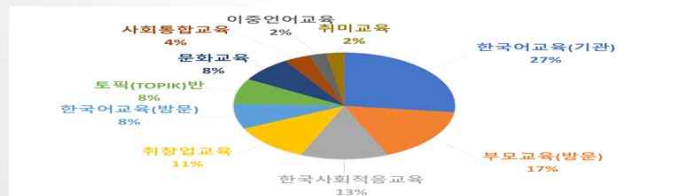
셋. 27편의 논문을 1차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유의미한 12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였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

2.1. 지역 센터별 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

1) 서울 지역: 「다문화가정의 통합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방안」(이은경, 2017)

서울 지역은 한국어·부모교육(44%)과 한국사회적응·취창업교육(26%)이 대다수(70%)로 차지하고 하며 결혼이주여성인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주로 제공하고 있었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

2.1. 지역 센터별 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

2) 경인 지역: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최권진·송경옥, 2014).

3) 충청남도 지역: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본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전정미·조순정, 2021). 「청양군 다문화 센터의 프로그램 현황 분석」(김미점, 2014)

4) 대구·경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성화방안」(김명현, 2014)

5) 강원 지역: 「상호문화주의 관점에 기초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분석」(박인옥, 2022)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

2.1. 지역 센터별 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

⇒ 교육 프로그램 연구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도시와 농촌 지역의 구분 없이 한국어교육과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가족센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각 지역의 특성이 존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가족센터에 거의 대부분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

2.2. 교육 사례별 프로그램 연구 동향

1)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 최권진·송경옥(2014)「여성결혼이민자대상 한국어 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 류경애(2015)「다문화가족의 한국어 학습 어려움과 수업개선에 대한 실증연구」
- ✓ 이희진·김진희(2016)「문화다양성관점으로 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실태」
- ✓ 오연주(2018)「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 ✓ 김선정·강현자(2019)「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문화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대상 요구분석 연구」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

2.2. 교육 사례별 프로그램 연구 동향

1)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지난 10년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도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의 한국어 교육이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동화주의 방식을 취해왔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 최근에는 점차 상호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

2.2. 교육 사례별 프로그램 연구 동향

2) 비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 이희진·김진희(2016). 「문화다양성관점으로 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실태」
- ✓ 최승호(2019) 「여성결혼이민자 교육 프로그램 요구분석」
- ✓ 정정미·조순정(2021)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본 충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 ✓ 박인옥(2022) 「상호문화주의 관점에 기초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분석」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

2.2. 교육 사례별 프로그램 연구 동향

2) 비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비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는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의 취업 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주민과 정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 일방적이고 일회적인 체험 형태의 교육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3.1. 다양한 내용의 고급 수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 초·중급이 아닌 고급 한국어교실이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는 분석은 의외의 결과(김선정, 2018)인데, 그것은 압도적으로 많은 TOPIK 대비반 때문이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습자의 50% 이상이 5년 이상의 장기 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67%가 고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숙달도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정·강현자, 2019: 860).

- 가족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고급 수준의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고급 수준의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 개발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족센터의 지속 발전한 미래를 담보해 줄 것이며 전문 인력 양성과 역량 개발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미래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3.2.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교육 프로그램인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상호문화교육을 비교적 잘 실천한 프로그램으로 분석(정정미·조순정, 2021)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우 소극적인 차원의 상호문화교육이다.

예)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아내나라말배우기(아산시 거주 베트남 다문화가족 남성 배우자 대상)', '엄마나라말배우기(베트남 다문화가족 자녀 (7~12세) 대상)'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3.2.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2021년에 운영되었던 63개의 사업을 상호문화 관점에 기초하여 분석한 연구(박인옥, 2022)를 보면, 가족센터에서 지향해야 하는 상호문화교육이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과 자녀와의 소통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등

=> 오랜 세월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한국에서 다문화가정과 이주민에게 가진 선입견과 편견은 각 개인을 향한 부정적 감정보다 국가와 민족에게 가지는 다문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하고, 이러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상호문화교육의 방향은 개인보다 국가나 민족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과 보편성을 서로 이해하는 과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3.3. 이주민 의견을 수렴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0년 전과 현재의 결혼여성이민자의 한국어 수준과 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큰 변화가 없는 가족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결혼여성이민자들에게 낮은 흥미와 참여를 가져오게 하기에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 다문화사회와 한국문화 이해의 영역 중 모국어 및 모국 문화 교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승호, 2019)는 연구 결과는 가족센터의 현재 교육 프로그램과 여성결혼이민자가 희망하는 교육이 매우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3.3. 이주민 의견을 수렴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의 참여율에 대한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상옥·함은혜·이은영(2021)에 의하면 가족센터의 여러 프로그램 중,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에 대한 참여율이 73% 내외로 가장 높았고, 반면,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상담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 참여율은 20-2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 문화예술 혹은 취미활동 관련한 자조모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한국어교육으로 집중된 현재의 가족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이 문화예술과 취미활동으로 다변화될 필요가 있겠다.
- 과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지만, 이제는 이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가족센터 고유의 특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주민에게 학교와 같은 공간으로, 교육 프로그램은 가족센터의 정체성이자 미래이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 접근으로서, 10년 동안 축적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의 동향을 검토한 후, 이주민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가족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방향을 모색하였다.

제3회
다문화사회와 상호문화실천 워크숍

연구발표

03

토픽모델링(LDA)을 활용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구동향 분석
김태훈 | 인천연구원

04

가족센터 구성원 간 상호문화소통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김진선 | 인하대학교

토픽모델링(LDA)을 활용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구동향 분석

김태훈 & 김은희

I. 서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로서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기관이다. 이주민 유입과 국제결혼가정의 급속한 증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변화의 흐름에 따라 2006년에 「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는 국제결혼 증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기존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22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 시도, 228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2021년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였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가족형태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과 상담,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자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특성상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 여성가족부는 기관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센터로 변경되기 전 연구물을 검토하기 위하여 변경 전 명칭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선행 연구동향 분석은(이보람, 2020; 최정혜, 2010; 황해영·이영선, 20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보다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특정 주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김태훈·배성훈, 2020: 262). 또한 선행연구들은 연구시기, 연구대상 및 주제 등과 같은 객관적인 범주로 분석하여 연구의 흐름과 특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항목별 빈도분석이라는 점에서 연구 동향을 단순화시킬 위험을 내포한다(김태훈, 김영순 2020: 70). 또한 빈도분석 중심의 연구는 개별 연구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의미 연결망을 형성하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는 데서 대안적 접근이 요청된다(김태훈, 김영순, 2020: 70). 따라서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물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물의 키워드 간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관련 분야에서도 텍스트마이닝 기법과 네트워크 분석으로 연구의 경향을 탐색한 연구들(강진구, 2019; 김세현, 2018; 박종도, 2019)이 다수 출간되었다. 강진구(2019)는 <다문화콘텐츠 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초록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실시하여 국내 다문화 및 다문화 콘텐츠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으나, 하나의 학술지만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전체를 조망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김세현(2018)은 국내 다문화 관련 연구의 동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 발행된 다문화 연구 논문의 초록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교육', '이주', '다문화 정책'이 주요 토픽으로 등장하였으며, 향후

다문화 연구는 이주민 자녀의 성장에 따라 ‘노동시장의 변화’를 비롯하여 ‘사회갈등’과 ‘이주민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등을 중심으로 학문적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나타났다(김세현, 2018). 국내 다문화 관련 문헌을 분석한 박종도(2019)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의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연구 기간별로 토픽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사회통합’과 ‘학교 다문화교육’이 핫토픽으로 등장하였으며 ‘문화정체성’과 ‘민족주의’가 콜드 토픽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태훈과 배성훈(2020)의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2007년부터 발행된 연구를 출현빈도와 중심성, 네트워크, 하위주제 집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된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연구주제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중심성 분석을 통해 키워드 간의 연결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한 연구들의 중심 주제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연구되어야 할 주제와 방향을 탐색할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김태훈, 배성훈, 2020). 그러나 분석 범위를 연구대상의 제목만으로 설정하여 연구 결과가 제목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분석 논문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분석 기간이 전체 기간을 중심으로 전·후반기로 특별한 기준 없이 설정되어 있어 시기별 특징과 연구가 진행된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임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 내 다문화가정의 수 증가,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및 사회 진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통합 등의 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운영 등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한 다양한 학술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구수연, 2021; 박인옥, 2022; 전정미, 조순정, 2021). 그러나 개별 연구만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연구가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학문적 유행이 무엇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연구의 방향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관련 연구물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된 연구물의 동향 분석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정책 과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본 연구에 앞서 실행된 여러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연구에서 나타난 핵심키워드는 무엇인가?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연구의 토픽모델링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2006년 범부처 종합 계획의 성격을 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 방안’이 마련된 이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8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은

2008년을 시작으로 현재 3차 기본계획까지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추진 체계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과 2010년 부처의 기능조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시도·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비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접점의 집행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 서비스를 통한 언어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와 결혼이민자 대상의 사회적응교육과 취업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과 이들 가족의 이중언어 환경조성 등 교육과 심리정서적 지원, 언어 능력 발달을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포털, 2022).

시기별 토픽 모델링의 키워드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주요 내용과 비교하여 심화 분석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각 시기별 비전과 목표, 구체적 정책과제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시기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주요 내용

	1차 (2010~2012년)	2차 (2013~2017년)	3차 (2018~2022년)
비전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목표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정책 과제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2.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3.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4.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6.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2.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4.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5.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출처: 여성가족부, 제1-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참고)

각 시기별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 기본계획은 2000년대 들어 급증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규모와 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사회에 대두되면서 정책이 수립되었다. 정책 수립 당시 2010년 기준으로 91만 명의 체류외국인 중 결혼이민자가 16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3%를 차지하였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매년 증가하여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을 통해 이들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가 증대되었다(김영숙·우정환, 2012: 85). 1차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 적합한 직종 개발 등을 통한 취업 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 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 지원과 사회보장 확대 등 국민으로서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강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여성가족부, 2010).

2차 년도 기본계획은 국제결혼비율이 안정화되고,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와 맞물려있다. 다문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 증가와 자녀세대들의 성장은 정책 수요에 대한 다양성 확대를 필요로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이혼 비율이 증가하여 체류자격, 사회·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이에 따른 정책 수요도 발생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정부는 1차년도 정책 평가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취학 자녀에 대한 지원, 가족해체 예방과 해체된 가족 지원 등이 부족함을 발견하고 2차 년도 정책의 방향성을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 문화 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자녀의 성장 및 발달 지원을 중점으로 추진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3차 년도 기본계획은 국제결혼 감소와 다문화가족의 안정화 및 장기정착 비율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수립되었다. 2010년까지 10-11%를 유지하던 국제결혼 비율은 2016년 7.3%까지 감소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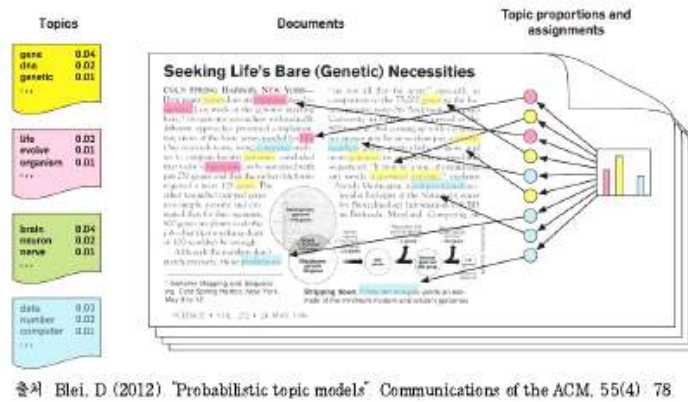
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증가세가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반면, 중도입국자녀와 다문화가족자녀의 중·고등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이 수립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또한 자녀 세대의 성장과 맞물려 결혼이민자의 사회 진출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초기 적응 중심에서 장기정착화에 따른 정책으로 정책 내용이 개편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결혼이민자들의 정착주기화에 따른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다문화 가정 폭력에 대한 결혼이민자들의 인권 보호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접근의 중요성이 정책에 반영되었다.

2. 토픽모델링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지능정보통신 사회로의 도래는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의 생산과 확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김미라, 황혜선, 이욱, 2020: 87). 텍스트 마이닝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계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기법으로 연구자의 수작업으로 진행된 전통적인 텍스트 분석방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김미라, 황혜선, 이욱, 2020: 87).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비구조화된 텍스트 데이터를 컴퓨터의 분석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단어로 분류함으로써 방대한 텍스트 속에서 잠재된 의미의 패턴과 주제의 분포를 도출해주는 텍스트 분석기법이다(백영민,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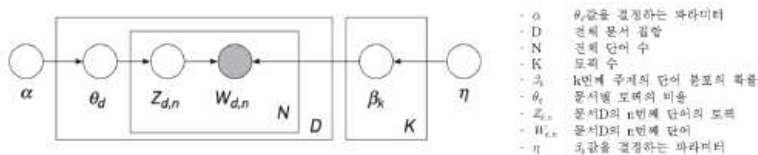
이 중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은 문서 집합 내에서 주제를 도출해줄 뿐만 아니라, 개별 주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다(Blei, 2012). 흔히 사용하는 토픽모델링 기법에는 LSA(Latent Semantic Analysis), pLSA(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Analysis),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등이 있으나, 그 중 LDA 기법이 여러 주제를 포함되어 있는 대량의 문서들을 분석하는 데 용이하므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김갑철·노현종, 2019: 53).

LDA 즉,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은 연구자가 설정한 문서들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각 문서에 어떠한 주제들이 존재하는지를 서술하는 확률적 토픽 모델 기법 중 하나이다(Blei, 2012). LDA는 사후확률 추론 방식으로 텍스트 데이터 내에 단어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단어가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조성배 외, 2018: 58). 문서에 숨겨져 있는 토픽을 변수로 보고 확률적으로 계산하여 해당 문서의 토픽을 추정한 뒤 확률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토픽의 적절성을 계산하는 방식으로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이용한다(백아명, 김중수, 2022). LDA 알고리즘은 동일한 단어라도 단어가 등장하는 문맥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특징이 있어 문서 토픽을 분류할 때 의미론적으로 더 타당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orn, J., Scheihing, E., Guerra, J. & Carcamo, L. 2014: 홍성연·최재원, 2017:28에서 재인용).



[그림 1] LDA의 원리

[그림 1]과 같이 $W_{d,n}$ 는 텍스트 데이터 D 에서 관찰 가능한 키워드이며 전체 키워드 N 에 속한다. 토픽의 분포와 $Z_{d,n}$ 는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문서별 토픽의 분포와 토픽이다. 토픽의 분포 θ_d 는 토픽 $Z_{d,n}$ 를 결정하고, $Z_{d,n}$ 와 토픽별 단어분포인 β_k 에 의한 키워드 $W_{d,n}$ 가 할당된다(Blei, 2012; 김상겸, 장성용, 2016). LDA 기법은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변수를 통해 관측되지 않는 변수들을 추론한다. 따라서 텍스트의 주제를 발견하는 데 있어 동일한 의미를 가진 키워드를 파악하고 분리하고 통합하는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한다(김미라, 황혜선, 이욱, 2020). 모델링 과정을 통해 추출된 토픽에는 빈도 혹은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가 포함되어있으나 개별 토픽 내에 담긴 키워드는 전체 텍스트 환경에서 해당 키워드 자체의 의미를 표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키워드 해석 시 토픽 내에 있는 다른 키워드들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Blei, D., 2012).



[그림 2] LDA의 그래픽 모델

I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구동향을 LDA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Riss(riss.kr)와 KCI(kci.go.kr)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키워드로 검색되는 모든 논문을 수집하였다. Riss는 국내 학위논문을 보관하는 국내 최대의 검색 사이트이며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예정)지들에 실린 소논문들을 모아 놓은 사이트이므로, 이들은 현재까지 검색 가능하여 유의미한 연구들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다. 제목, 키워드, 초록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핵심어가 포함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소논문과 학위논문의 연구 동향은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연구 시작점과 논문의 총 개수가 크게 차이가 나서 소논문과 학위논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소논문의 경우 학회의 학술대회 기획 주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전문적인 연구자 집단의 연구 경향이 농후하게 반영될 수 있다 반면에 학위논문은 개별 연구자의 연구 관심사 해결과 학위 취득이라는 목적이 강하다는 특징과 학위 취득 자 중 상당수는 연구자 집단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김태훈, 2022). . 따라서 자료의 특성상 이들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구의 흐름을 드러내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논문과 학위논문 각각의 연구 동향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분리해서 분석하였다. 한편, 소논문의 연구 동향과 학위논문의 연구 동향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기술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개별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시기별 연구 동향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법과 비교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1차부터 3차까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발표된 년도(1차 2002년, 2차 2013년, 3차 2018년)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즉, 2012년 이전을 1차 년도, 2013년부터 2017년을 2차 년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를 3차 년도로 구분하여 시기별 토픽 모델링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발표되어 적용된 해당시기에 소논문과 학위논문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연구들이 어떤 동향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표 2> 분석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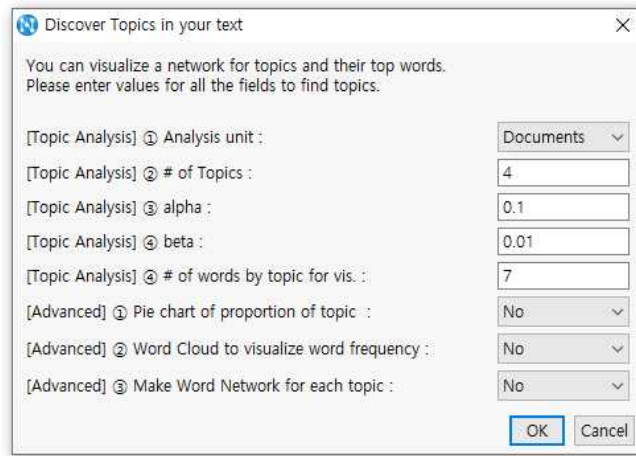
자료 수집 방법	RISS에서 제목, 키워드, 초록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포함된 논문 검색 후 서지 정보를 엑셀로 변환
분석 대상	수집된 논문의 초록
분석 방법	토픽 모델링(LDA)
분석 시기 구분	- 1차 : 2012년 이전 - 2차 : 2013년~2017년 - 3차 : 2018년~2022년
키워드 정제 : 제외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화, 가족, 지원, 센터, 다문화, 연구, 분석

최초 검색 시 학술논문 총 321편, 학위논문 132편이 추출되었으며, 학술논문으로 검색되는 연구물 중에서 단순 기사나 인터뷰, 토론문, 서평 등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연구물과 사진과 지도 등 이미지화된 자료를 제거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후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중복 검색된 논문을 확인하여 각 1편만 수집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분석 자료의 다양성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모든 자료를 활용하였다(김태훈, 202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과정에서 정확한 키워드를 추출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연구자 마다 같은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키워드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 정제작업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김태훈, 2022). 논리적으로 일관된 정제작업을 거치지 않은 키워드로 복잡한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키워드 간의 관계가 왜곡되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태훈, 2022). 따라서 수집된 자료의 정확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기하기 위해 이수상(2014)의 연구를 기반으로 키워드 제거 작업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정제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숫자와 특

수 기호를 제외하고 명사 형태의 단어만 추출하였으며 ‘연구’, ‘분석’ 등과 같이 본 연구에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불필요한 키워드와 한 글자로 된 단어들은 제외하였다(최효진, 2020).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키워드 제거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제외하지 않을 경우 동시출현 빈도가 왜곡되어(김태훈, 2020) 토픽 분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연구주제의 세부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학술논문 280편, 학위논문 108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학술논문에서 2,464개, 학위논문에서 2,287개의 단어가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결과의 시각화를 위해 첫째, 단순출현빈도가 높은 200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워드클라우드를 작성하였다. 둘째, 문서에 잠재된 토픽을 추출하기 위하여 NetMiner program version 4.5.0의 LDA 알고리즘($\alpha=0.01$, $\beta=0.001$)을 활용하였다. 토픽 그룹과 상위 키워드 개수는 여러 선행연구(이후희, 2021; 를 참조하여 각각 4개, 7개로 설정하여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설정 내역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넷마이너 토픽모델링(LDA) 설정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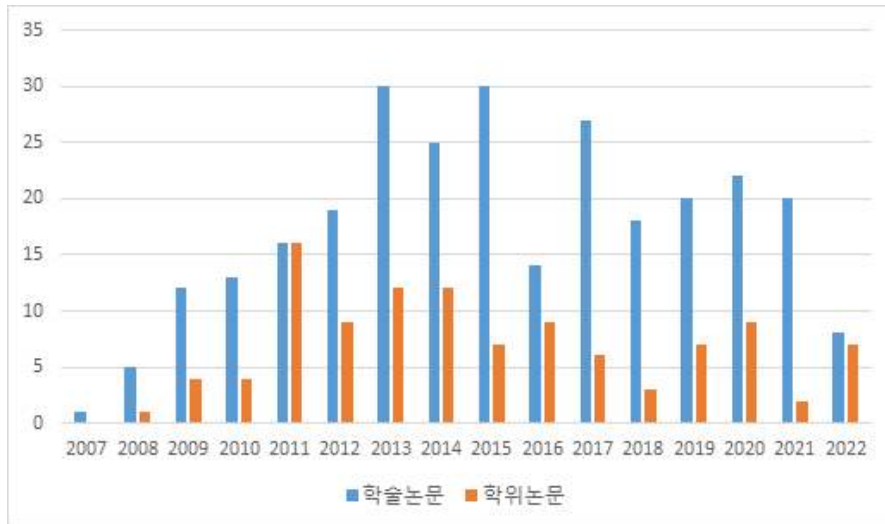
IV. 연구결과

1. 연도별 및 유형별 동향

위 연구방법으로 분석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연구의 연도별 및 유형별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차 시기의 첫 해인 2007년에 학술논문 1편이 발행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0월까지 학술논문은 모두 280편, 학위논문은 108편이 발행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연구의 연도별 및 유형별 발행 추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2차 년도 초반까지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 3차 년도에는 특정한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표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연구의 연도별 및 유형별 현황

구분	년도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도별	합계	연도별	합계
1차	2007	1	66		34
	2008	5		1	
	2009	12		4	
	2010	13		4	
	2011	16		16	
	2012	19		9	
2차	2013	30	126	12	46
	2014	25		12	
	2015	30		7	
	2016	14		9	
	2017	27		6	
3차	2018	18	88	3	28
	2019	20		7	
	2020	22		9	
	2021	20		2	
	2022	8		7	
	계		280		108



[그림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연구의 연도별 및 유형별 발행 추이

이어서 연구물의 출처와 발행기관을 분석하였다. 2편 이상 학위논문이 발간된 대학교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학위논문은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었고,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홍익대학교에서 4편이 발행되었다.

학술논문은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에서 14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고, '가족 자원경영과 정책'에서 11편, '다문화콘텐츠연구'에서 9편, '가정과삶의질연구'에서 7편 순으로 게재되었다. 2편 이상 학술논문이 발행된 학술지 및 학술대회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4> 2편 이상 학위논문 발행한 학교

학교	학위논문 수
연세대학교	8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홍익대학교	4
강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3
가야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천대학교	2

<표 5> 2편 이상 게재된 학술지 및 학술대회

학술지 및 학술대회 명	학술논문 수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4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1
다문화콘텐츠연구	9
가정과삶의질연구	7
인문사회 21,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6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다문화교육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5
다문화와 인간,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유아 교육학논집, 한국가족복지학	4
다문화사회연구, 다문화와 평화,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인문과학연구, 한국보육학회지,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어 교육, 한국어언어문화학, 한국어민정정책학회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경찰학논총, 교육문화연구, 국가정책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사회복지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언론과학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지방정부연구, 청소년시설환경, 평생교육학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행정논집, 현대사회와 다문화	2

2. 핵심 키워드

이어서 시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연구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키워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위 출현빈도 키워드 분석은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1) 학위논문의 핵심키워드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학위논문 1차 년도에는 교육(182회), 사회(107회), 결혼(107회), 서비스(104회) 키워드가 많이 나타났으며, 2차 년도에는 교육(193회), 사회(162회), 결혼(139회), 다문화가정(131회) 키워드가 많이 나타났으며, 3차 년도에는 교육(193회), 사회(162회), 결혼(139회), 다문화가정(131회) 키워드가 많이 나타났다.

모든 시기 상위권에 나타난 키워드는 결과, 결혼, 교육, 사회, 서비스, 여성, 영향, 지역, 프로그램, 필요, 한국, 한국어 등이다. 중복되어 나타나는 27개의 키워드를 제외하면, 총 33개의 키워드가 상위 빈도를 나타냈다.

<표 6> 학위논문 시기별 상위 키워드 빈도 수

순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키워드	빈도 수	키워드	빈도 수	키워드	빈도 수
1	교육	182	교육	193	교육	145
2	사회	107	사회	162	결혼	99
3	결혼	107	결혼	139	지역	86
4	서비스	104	다문화가정	131	한국어	82
5	직무	88	프로그램	107	서비스	74
6	한국어	85	서비스	97	필요	70
7	여성	79	한국어	94	프로그램	67
8	한국	74	결과	88	여성	66
9	프로그램	63	한국	87	인식	63
10	결과	59	자녀	87	사회	60
11	가정	59	지역	85	아동	59
12	필요	57	영향	81	민자	58
13	만족	56	여성	80	한국	57
14	특성	55	역량	78	자원	57
15	영향	52	적응	72	개선	56
16	관계	51	가정	72	외국인	55
17	지역	49	교사	71	결과	55
18	요인	47	필요	68	조사	54
19	생활	42	정책	68	영향	49
20	다문화가정	41	관계	68	대상	49

워드 클라우드의 키워드 크기가 출현 빈도에 비례하여 표현되므로, 키워드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각화 자료이다. 학위논문의 년도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연구에 나타난 상위 키워드 200개의 워드 클라우드는 다음 [그림 5, 6,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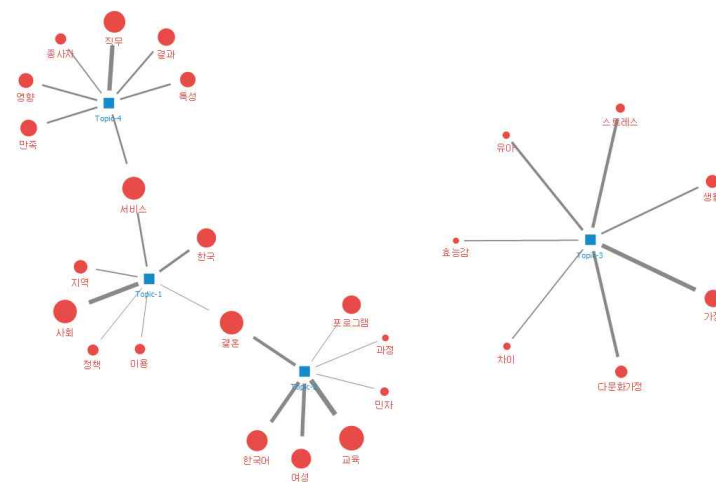
<그림 10> 학술논문 3차년도 빈도수 상위 200개 워드 클라우드

3.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에서는 시각적 판별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으로 설정된 값대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에 유형별 토픽 수 4개, 토픽별 키워드 수 7개, alpha값 0.1, beta값 0.01로 설정하였다. 키워드-토픽 네트워크에서 토픽별로 그룹화되는 모델과 토픽 간 중첩된 단어에 의한 연관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김태훈, 2022).

1) 학위논문의 토픽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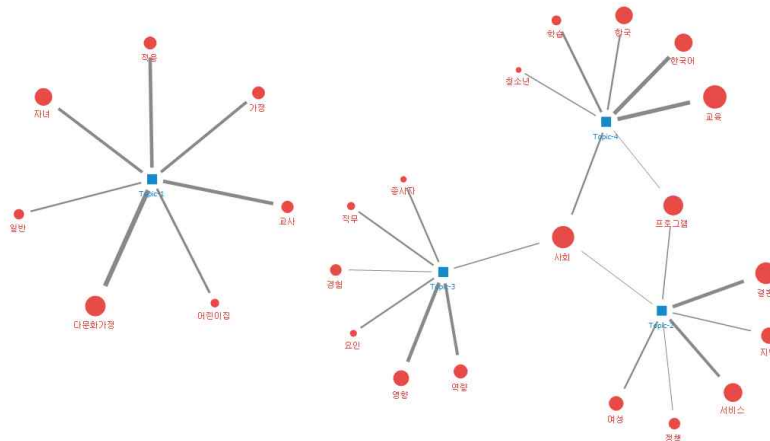
학위논문 1차년도 기간에 나타난 하위주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토픽모델링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와 ‘결혼’ 키워드가 두 그룹을 연결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사회, 한국, 서비스, 지역, 정책, 결혼, 이용 키워드가 1그룹에 나타나고, 교육, 한국어, 여성, 결혼, 민자, 프로그램, 과정 키워드가 2그룹에 나타나며, 직무, 서비스, 특성, 결과, 만족, 영향, 종사자 키워드가 4그룹에 나타났다. 다른 그룹과 연결 없이 ‘가정’, ‘다문화가정’, ‘스트레스’, ‘유아’, ‘생활’, ‘차이’, ‘효능감’ 키워드가 3그룹에 나타났다.



<그림 11> 학위논문 1차년도 토픽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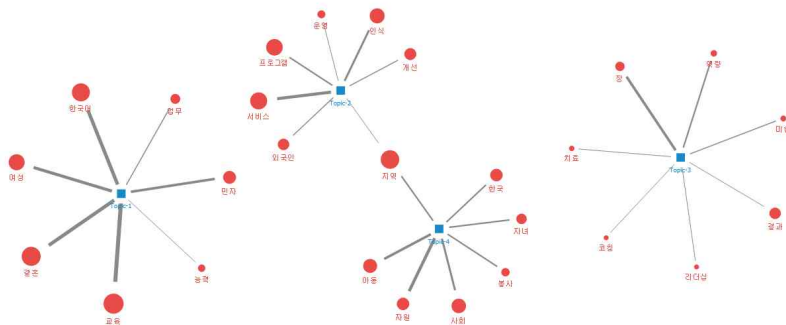
학위논문 2차 년도에 나타난 하위주제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토픽모델링을 분석한 결과, ‘사회’와 ‘프로그램’ 키워드가 서로 다른 그룹을 연결해주고 있다. 결혼, 서비스, 여성, 프로그램, 지역, 정

책, 사회 등의 2그룹과 사회, 프로그램, 교육, 한국어, 학습, 한국, 청소년 등의 4그룹이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회, 영향, 역량, 직무, 요인, 종사자, 경험 등의 3그룹에서 사회는 2그룹과 4그룹을 연결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교사, 적응, 자녀, 가정, 어린이집, 일반 등의 1그룹은 별도로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학위논문 2차 년도 토픽 모델링

학위논문 3차년도 토픽모델링은 1그룹에 교육, 결혼, 한국어, 여성, 민자, 업무, 능력 등이 나타났고, 3그룹에 장, 역량, 미술, 치료, 리더십, 코칭, 결과 등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인식, 프로그램, 개선, 외국인, 지역, 운영 등의 2그룹과 자원, 아동, 사회, 자녀, 봉사, 지역, 한국 등의 4그룹을 지역 키워드가 연결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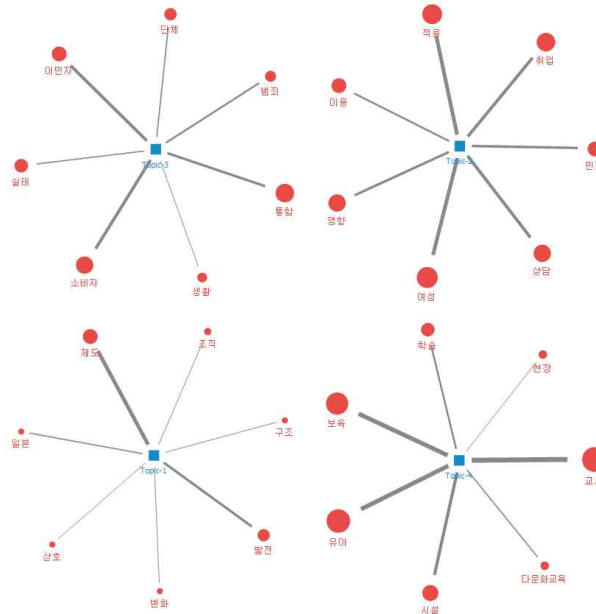


<그림 13> 학위논문 3차년도 토픽 모델링

학위논문의 토픽모델링 결과 모든 시기에 나타나는 토픽 키워드는 결혼, 교육, 사회, 서비스, 여성, 지역, 프로그램, 한국, 한국어 등이다. 이 중에서 특히 결혼, 사회, 서비스, 지역, 프로그램은 동일한 시기에 두 그룹을 연결하기도 해서, 핫 토픽이라고 할 수 있다. 중복되어 나타나는 34개의 키워드를 제외하면, 총 50개의 키워드가 토픽 그룹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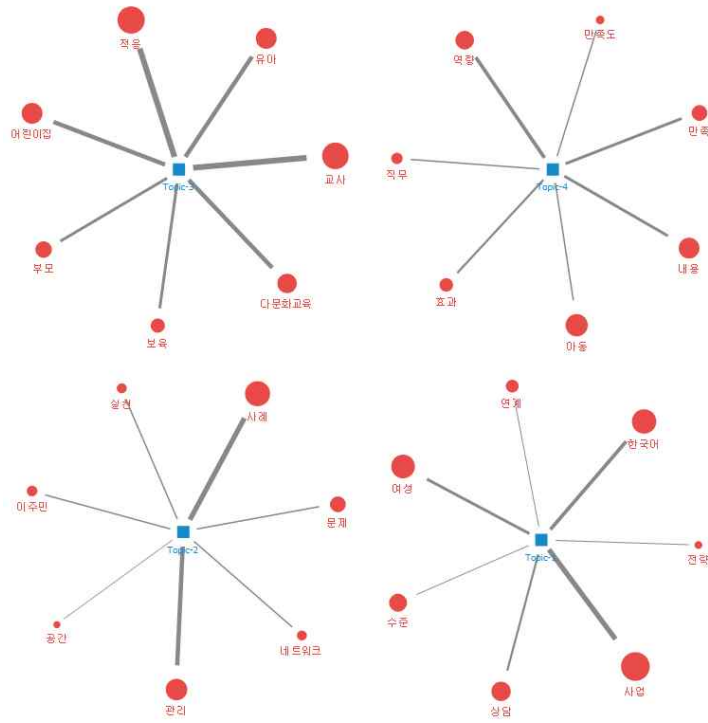
2) 학술논문의 토픽모델링

학술논문의 연도별 토픽모델링은 그룹을 연결해주는 키워드 없이, 4개의 그룹이 각각 모델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논문 1차 년도는 1그룹에 제도, 발전, 일본, 변화, 상호, 조직, 구조의 키워드가 나타났고, 2그룹에 여성, 적응, 취업, 상담, 민자, 영향, 이용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3그룹에 소비자, 이민자, 통합, 범죄, 실태, 단체, 생활 등의 키워드가, 4그룹에 교사, 유아, 보육, 시설, 학습, 다문화교육, 현장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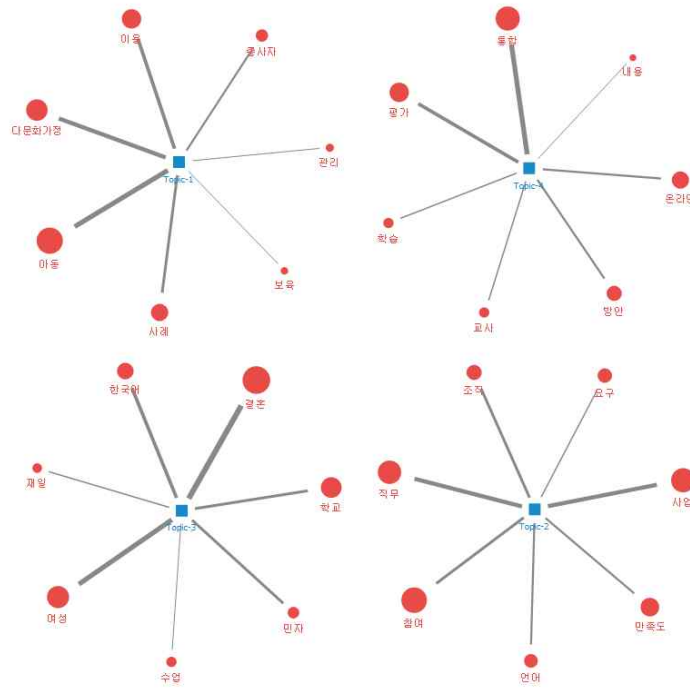
<그림 14> 학술논문 1차년도 토픽 모델링

학술논문 2차년도는 1그룹에 사업, 한국어, 여성, 상담, 연계, 수준, 전략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고, 2그룹에 사례, 관리, 이주민, 네트워크, 실천, 문제, 공간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3그룹에 교사, 적응, 유아, 린이집, 다문화교육, 부모, 보육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고, 4그룹에 역량, 만족, 내용, 효과, 아동, 만족도, 직무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그림 15> 학술논문 2차년도 토픽 모델링

학술논문 3차년도는 1그룹에 아동, 다문화가정, 이용, 사례, 종사자, 관리, 보육 등의 키워드가, 2그룹에 사업, 직무, 참여, 조직, 만족도, 언어, 요구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3그룹에 학교, 민자, 재일, 수업, 결혼, 여성, 한국어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으며, 4그룹에 통합평가, 방안, 온라인, 교사, 학습, 내용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그림 16> 학술논문 3차년도 토픽 모델링

학술논문의 토픽모델링 결과 모든 시기에 나타나는 토픽 키워드는 교사, 보육, 여성이다. 중복되어 나타나는 23개의 키워드를 제외하면, 총 61개의 키워드가 토픽 그룹을 형성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RISS와 KCI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 자료 388편을 수집하였다. 빅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방법 중 Topic Modeling(LDA) 기법을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발간된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방법은 2단계로 구분하여 실행하였다. 1단계에서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여 중복되는 논문은 제외하고 핵심어빈도 분석과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를 하였다. 2단계에서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초록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발표 시기를 기준으로 1~3차년도로 나누어 토픽모델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야의 연구에서 지속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요 핵심어는 학위논문의 경우 ‘교육’, ‘사회’, ‘결혼’, ‘서비스’ 등으로 나타났고, 학술논문의 경우는 ‘여성’ 뿐이었다. 빈도수 상위 20위권 내에 중복되는 키워드는 학위논문이 27개, 학술논문이 1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하여 학위논문 보다 학술논문에서 더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토픽모델링 분석을 하였다. 각 시기별로 4개의 그룹 안에서 7개의 토픽으로 모델링 하였는데, 중복되어 나타나서 서로 다른 그룹을 연결하는 키워드를 제외했을 때, 학위논문의 경우는 50개, 학술논문의 경우는 61개의 키워드가 토픽 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도 역시 학위논문 보다 학술논문에서 더 다양한 토픽 키워드들이 연구되었음을 뒷받침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발표된 연도를 기준으로 시기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연구의

시기별 토픽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강한 연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학위논문은 ‘교육’, ‘사회’, ‘결혼’에 관련된 토픽이 3차년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연구된 반면, 학술논문에서는 3차년도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토픽들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술논문의 경우 2차년도에서 ‘사업’, ‘적응’에 대한 키워드가 상위 빈도수를 나타내고, 토픽 모델링에서 주요 키워드로 나타난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1차년도 이후 2차년도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나 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새롭게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술논문 3차년도에서는 참여와 만족도 키워드가 많이 등장했는데, 이는 3차년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비전인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와 연관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각 시기별 상위 빈도수와 토픽모델링의 키워드를 비교했을 때, 중복되지 않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2차년도 보다 3차년도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최근 들어서 점차 더 다양한 토픽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약 15년 동안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연구의 범주가 점차 넓어지고 연구의 주제가 다양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편 이상 학위 논문을 발행한 학교는 24교, 학술지 및 학술대회는 47개나 되는 것은 다양한 인접 분야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독자적인 분야로의 수용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자료를 수집할 때 영문 초록만 있거나 초록이 없는 경우는 분석 프로그램의 한계로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집된 논문 중에서 영문 초록만 있는 학술지 논문은 28편, 학위논문은 5개로 전체 학술지 논문의 10%, 학위논문의 4.6% 정도에 해당했다. 둘째, 많은 자료의 수집을 위해 모든 석·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거시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지만,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도 포함되어 분석 대상으로서 연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야가 1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전문 분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의 시도를 존중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은 연구 내용을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제외어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토픽모델링에서 최적의 토픽 수에 대한 선정 기준에 따라 상세 연구 주제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효 토픽을 선정하는 기준도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토픽의 선정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구 동향 분석을 다문화가족정책의 발표 시기와 관련하여 토픽모델링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연구 동향 분석은 전통적인 방법인 내용 분석에 의존했거나, 특정한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15년 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야에 축적되어 있었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분야의 주요 연구 대상과 연구 주제 등을 도출함으로써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연구 대상과 주제 및 연구 영역에 대한 직관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고 연구 태동기부터 현재까지의 거시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했다는 점이 학술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론은 향후 관련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과 추세 파악뿐만 아니라 기존의 체계적 고찰 방법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구(2019).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본 <다문화콘텐츠연구>의 연구 경향 분석. 다문화콘텐츠연구, 0(32), 331-356.
- 구수연(2021).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실태와 지원 요구. 다문화콘텐츠연구, (36), 7-43.
- 국가법령정보센터(2022). 다문화가족지원법. 2022.10.10. 검색
- 권오경·김남희·김혜빈(202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통시적 고찰.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0, 31-64.
- 김갑철·노현종(2019).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지역지리교육 연구 동향 분석. 사회과교육, 58(4), 46-67.
- 김미라, 황혜선, 이욱 (2020).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소비자교육 연구 동향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6(2), 83-115.
- 김세현(2018). 비정형자료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다문화 연구. 한국인구학, 41(1), 1-27.
- 김영숙, 우정환(2012).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13,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69-103.
- 김태훈(2022). 인천 문화 관련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인천학연구, 37, 45-85.
- 김태훈·배성훈(202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구동향. 다문화콘텐츠연구, 0(33), 259-296.
- 김태훈, 김영순(2020). 통일교육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평화문제연구소, 32(1), 69-108.
- 다문화가족지원포털(2022).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 2022.10.10. 검색
- 백아명, 김중수(2022).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분야의 연구 동향 분석-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과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3(6), 241-268.
- 박인옥(2022). 상호문화주의 관점에 기초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분석.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6), 1-21.
- 박종도(2019).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다문화 연구의 이슈 추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3), 273-289.
- 여성가족부(2010).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2).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6). 2016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설명회 자료집.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 이보람(2020). 다문화 및 다문화가정의 연구동향에 관한 경향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4), 99-122.
- 이수상(2014). 언어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31(4).
- 이후희(2021). ADHD 아동 및 청소년의 국내 중재 연구동향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9(1), 43-56.
- 장성용·김상겸(2016).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국내 산업공학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6(4), 3996-4018.
- 전정미, 조순정(2021).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본 충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6(1), 39-66.
- 조성배, 신신애, 강동석(2018).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개방형 혁신 연구동향 분석 및 정책 방향 모색. 정보화정책, 25(3), 52-74.
- 최정혜(2010). 제5장 다문화가족 연구 동향분석: 2005-2010년 발간된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22(0), 79-98.
- 최효진(2020).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의 댄스문화 연구주제에 대한 고찰. 예술교육연구, 18(4), 425-438.

- 홍성연·최재원(2017). 토픽 모델링 분석 기법을 활용한 대학의 학생 지원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8), 21-48.
- 황해영·이영선(2015).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동향연구-최근 10년간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 Blei, 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 Born, J., Scheihing, E., Guerra, J., & Cárcamo, L. (2014). Analysing microblog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European Conference on Technology Enhanced Learning* (pp. 15-28). Springer, Cham.

가족센터 구성원 간 상호문화소통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발표자: 김진선

I. 서론

본 연구는 가족센터 구성원 간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소통양상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상호문화실천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세계화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초국적 이동이 보편화되면서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결혼이주여성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했다(김유정, 2021). 정부는 국내 다문화 구성원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문화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정책을 수립하였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그리고 정책에 따른 사업과 서비스를 시행하고 운영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초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증가하면서 이원화된 전달 체계를 통합하여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의 이와 같은 변화는 정주민과 더불어 이주민을 수혜적 대상이 아닌 주체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것으로 이주민과 정주민, 이주민과 이주민 간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공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김기화, 2022). 이러한 공존은 이주민을 주체적인 시민으로 인정하며 문화간 차이를 넘어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소통과 관계를 초점을 둔 것으로 '상호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상호문화주의는 이주민과 정주민이 소통을 통해 친밀함을 형성하고 서로 간 차이에 따른 편견과 정서적 장벽을 허물고 상호문화 교류할 수 있는 공동의 문화 형성을 중시한다(박인옥, 2022).

가족센터는 공동의 문화 형성을 위한 다문화사회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기관운영자와 기관사용자들이 만나고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하는 공간이다. 기관운영자는 센터장과 팀장, 한국어 강사, 언어치료사, 통·번역사, 상담사, 방문교육지도사 등이며 기관사용자는 이주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자녀, 다문화가족, 일반가족이 있다. 기관운영자는 언어 및 문화교육, 정착과 취업, 심리·정서 지원을 제공하고 기관사용자는 서비스 참여를 통해 기관운영자와 만나고 소통한다. 가족센터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문화 간 접촉 및 만남은 개개 문화의 상호융합 현상을 가져온다(갈라노바 딜노자, 2018). 센터구성원들은 개개 문화의 지식을 공유 및 획득, 공감과 이해, 갈등, 협력, 연대 등 공존을 위한 실천에 참여한다. 구성원 간 끊임없는 상호작용은 행동의 기초를 이루는 개인의 가치와 편견을 성찰하게 하며 서로 다른 문화집단 간 발전적인 상호 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 즉, 삶을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 등을 고민함으로써 문화간 경계와 장애물을 극복하고 균형 있는 상호 성장을 지향한다(박인철, 2017).

가족센터 내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경화(2014)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관운영자와 결혼이주여성과의 개인적 만남 또는 관계가 소극적 및 적극적 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만남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 또는 관계의 양상 등 그 세부적 내용을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영순·김도경(2022)은 가족센터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소통 경험 연구에서 기관운영자와 사용자 간 형식적인 만남과 소통이 상호문화소통

의 저해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가족센터 내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연구범위도 제한적이다. 이에 가족센터 기관운영자와 기관사용자의 상호문화소통을 살펴보기 위해 센터 운영 및 사용 경험 중심으로 운영사업,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의 연구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센터 구성원 간 구체적인 상호문화소통의 양상은 질적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질적연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양적연구에서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설명하여준다(김효선, 2022). 그러나 이러한 질적연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별 질적연구는 각기 수행된 연구의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이수민, 김경식, 2020) 일반화 도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수의 질적연구로부터 도출된 결과들이 축적되어 분석되는 질적 메타분석 연구는 더 집약되고 종합적인 새로운 의미와 실용적인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나장함,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질적 연구물에 나타난 가족센터 구성원 간 상호소통의 양상을 살펴보고 질적 메타분석을 실행함으로써 정주민과 이주민의 상호소통의 총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정주민과 이주민의 상호공존과 성장을 위한 상호문화 실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센터가 다문화사회 공존의 공간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족센터 구성원 간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물에 나타난 종합적 의미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센터의 운영자와 사용자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들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설립된 가족 지원정책 기관이다(박상옥 외, 2021). 가족센터는 기존의 다문화 초기 정착 및 생활·문화 적응에 그치는 사업을 넘어 가족 사업의 부모교육 및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 가족문화 프로그램, 다문화 및 가족 상담, 자조 모임, 이중언어, 육아 나눔터를 통한 품앗이 등 정주민과 이주민을 포괄하여 지역 육구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가족센터는 지원 대상과 사업이 다양화되면서 센터 사용 주체가 이주민 중심에서 이주민과 정주민으로 넓어졌다. 기관운영자는 기관의 센터장을 비롯한 기관종사자로 한국어교육, 통·번역, 상담 및 사례관리,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적응 교육 및 취업 교육 지원, 가족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다. 대부분 정주민으로 구성되며 일부 이중언어강사 및 통·번역사, 상담사 등이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사용자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배우자 및 가족, 한국인 가족 등으로 그 범위가 이주민과 정주민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통해 기관운영자와 기관사용자는 다양성을 전제로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한다(박인옥, 2022; 이현아, 2020).

가족센터 구성원 간 다양한 문화의 만남과 소통은 문화간 경계를 허물고 ‘나의 것’과 ‘낯선 것’ 사이에서 경계와 장애를 극복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상호문화소통은 문화의 중첩상황에서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타자의 입장이 되어 타자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으로서 다름을 전제하는 동시에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다(박인철, 2017). 가족센터의 구성원은 상호문화 소통을 통해 개인의 문화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다. 이에 상호문화소통은 가족센터 기관운영자와 기관사용자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이며, 이는 다문화사회 상호공존을 위한 상호문화 실천적 성격을 지닌다.

가족센터의 구성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센터 종사자의 사업 운영 경험 및 인식에 관한 연구(김성숙, 홍성희, 2010; 김수정 외, 2020; 김은정, 2015; 김혜미, 2013; 문정희, 2019), 센터 내 상담자의 상담 경험(강기정, 이무영, 2011; 장영신, 정경미, 2014), 사례 관리사의 직무 경험(강기정, 이무영, 2013; 김은재, 최현미, 2019; 이경란, 류지성, 2019; 이경란, 최정숙, 2020) 등 기관운영자 중심 연구이다. 다른 한편 기관사용자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다. 센터에 관한 인지 및 이용 경험(권인옥 외, 2020; 박상옥 외, 2021; 손병돈, 2014; 최새은 외, 2020), 센터 자조모임 및 공동체 참여 경험(김영순, 김도경, 2022; 김영순, 문희진, 2022; 김영순, 최수안, 2022), 센터 교육, 상담, 취업 프로그램 참여 경험(배운정, 박지선, 2022; 서정원, 민윤경, 2021; 오연주, 2018; 이현아, 2022) 등이다. 선행연구의 시사점으로 단일 대상 혹은 변수를 통한 결과를 제시함으로 사회통합의 복잡성을 고려한 통합적 결과를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외 기관운영자와 사용자를 함께 연구한 강비아(2019)와 최지은(2021)은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가족센터의 다문화 인식과 사업 개선방안을 연구했지만, 결과에 있어 특정 지역만 다루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 김승일(2019)은 전국 가족센터 40개소에서 기관운영자와 기관사용자 417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전달체계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을 탐색하였지만, 효과성 요인을 5개로 제한함으로써 그 외 다양한 요인에 대한 결과를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가족센터의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포괄하고 연구에 나타난 기관 운영자와 기관사용자 모두의 목소리를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가족센터 구성원 간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상호문화실천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상호문화소통

상호문화소통은 상호문화성을 바탕으로 한다. 상호문화성은 단일문화를 넘어 둘 이상의 문화가 만나며 형성된 ‘사이 영역’의 공간의 문제이다(김영순, 최승은, 2016; 김태원, 2012). 이 공간은 문화간 고유성의 인정뿐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공존의 새로운 가치생산이 이루어지는 역동적 공간이다(김태원, 2012). 상호문화성의 ‘inter’는 상호작용, 교환, 장벽 제거, 진정한 연대성을 의미한다(Rey, 1986). 이 개념은 특정한 문화가 다른 문화들을 지배하거나 획일화하는 동화주의적 입장을 비판하며, 다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관용적 태도로 상호문화를 인정하고 균등한 위치에서 접촉하고 교류하며 차이와 함께 보편성을 지향하는 것이다(김영순, 최유성, 2020; 박현주, 2020).

이러한 상호문화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문화소통’은 다양한 문화적 주체가 만나고 대화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알 수 없었던 다른 세계관과 문화양식을 배우며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다. 이에 김영순·최유성(2020)은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일상적 차원에서 상호문화소통역량이 작동되는 실천 행위로 정의하였다. 신용식(2021)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관용과 이해,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고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수정하고 성장시키는 발판이라 하였다. 김영순·김도경(2022)은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의미탐색에서 상호문화소통은 단순한 정보 및 지식의 전달 수준을 넘어 공감과 포용, 이해와 관용이 요구되는 동시에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표현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상호문화소통이란 서로 다른 문화의 사고방식과 행동규범을 이해함으로써 자문화중심주의에서 문화상대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며, 수용과 인정을 넘어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의미에 관한 연구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이주민 중심의 연구(갈라노바 딜노자, 김영순, 2021; 김영순, 김도경, 2022; 김영순·최유성, 2020; 김종대, 2013), 소수 다국적 배경의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측면에서 연구(하중천,

오영훈, 2021)가 있다. 대부분 이주민 또는 정주민의 어느 한 측면의 경험을 다른 연구로 상호 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Ⅲ. 연구방법

1. 질적메타분석

본 연구는 가족센터의 기관운영자와 사용자의 상호 간 소통과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질적연구를 질적 메타분석(qualitative meta-synthesis)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유사 주제의 질적연구 결과들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현상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일반화하고자 시도된 질적 메타분석은 스텐(Stern)과 해리스(Harris)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질적 연구물들을 합친다는 의미이다(나장함, 2008; Walsh & Downe, 2004). 질적연구방법은 특정 맥락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지만 개별 사례로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질적 메타분석은 질적 결과물들을 종합하여 현상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일반화하기 어려운 질적연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즉, 질적 메타분석에서의 종합적인 분석은 해석에 중점을 둔 것으로(Paterson, 2001) 기존의 연구물들이 제시하는 결과들의 축적된 지식을 해석하여 좀 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나장함, 2008).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과 해석을 통해 다양한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그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제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이수민, 김경식, 2020; 최수안, 김영순, 2021).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족센터의 기관운영자와 사용자 간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연구는 가족센터의 구성원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한 경험을 보이고 있으며, 사례의 주제(교육, 취업, 학습, 자조모임)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하다. 소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연구물의 결과는 구체성과 맥락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가족센터의 상호문화소통을 파악하고 실용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센터의 기관운영자와 사용자 간 상호문화소통과 관련된 질적 연구물을 질적 메타분석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족센터 사용자 간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다문화사회 공존을 위한 상호문화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절차와 연구 대상

질적 메타분석은 다른 체계적 문헌 고찰 및 양적 메타분석과 같이 연구영역과 개별연구물 선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수민·김경식(2020)을 참고하여 Noblit & Hare(1988)의 7단계 연구 절차에 따라 영역을 정하고 기준을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절차(Noblit & Hare,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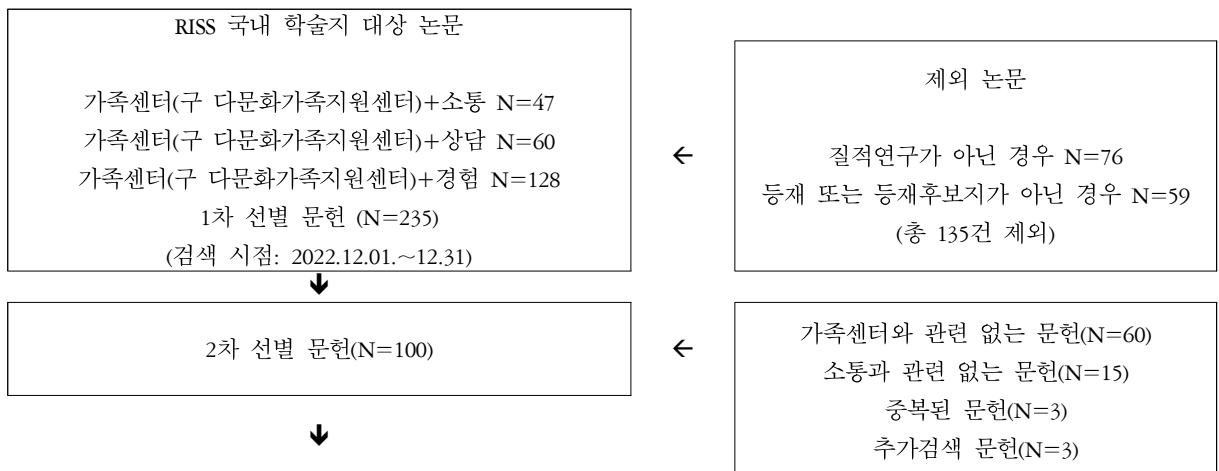
단계	절차	수행 방법
1	연구 시작하기 (연구주제와 연구문제 설정)	종합할 가치가 있는 질적 연구물로 대답할 수 있는 연구 문제 정하기
2	연구 문제와 관련된 분석 대상 연구물 선정하기	연구 문제와 관련 있는 질적 연구물을 탐색하여 분석 대상 연구물 선정하기
3	분석 대상 연구물 읽기 및 분석	선정된 질적 연구물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연구 문제와 관련 있는 세부적 내용 파악하여 주제 및 개념 정리하기
4	연구물 간 관계 설정하기	파악한 세부적 내용(은유, 개념, 개념 간)의 관계 목록을 작성하고

		각 연구물 간의 관계를 설정하기
5	연구물 간 연관 분석 및 해석하기	한 연구물에서 은유나 개념으로 설명된 부분을 다른 연구물에서 설명된 부분과 비교하면서 해석하기
6	해석 종합하기	각 연구물이 시사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좀 더 포괄적인 은유나 개념 찾기
7	종합한 것 기술하기	종합한 결과를 기술하기

1단계 연구 시작하기 단계에서는 ‘가족센터 구성원 간 상호문화소통 경험 탐색’이라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기준으로 수집하였으며 나장함(2008)의 포함 배제 기준 2가지를 적용하여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그 기준은 연구자의 연구 초점과 주제적 유사성과 적절한 연구방법의 사용이다. 이를 위해 ‘가족센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소통’, ‘가족센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상담’, ‘가족센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경험’ 키워드로 검색하여 각각 47편, 60편, 139편으로 1차로 총 235편의 연구물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연구물에서 1차로 질적연구가 아닌 경우(N=76)와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가 아닌 경우(N=59)를 제외하고 연구물 100편을 추출하였다. 이후 2차로 선정된 문헌의 초록과 본문을 살펴보고 가족센터 및 상호문화소통과 관련이 없고 중복된 문헌을 제외하여 16편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센터와 소통 및 경험으로 검색되지 않은 관련키워드(방문교육지도사, 사례관리사, 상담사 등)를 추가적으로 검색하여 3편의 질적연구물을 추가하여 최종 19편의 연구물을 최종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선정과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을 통하여 선정된 논문은 총 19편으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 동안의 연구물이다. 분석 대상 논문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의 연구 대상 논문을 선정한 이후 절차 3단계에서는 개별연구물을 읽고 주제 및 개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나장함(2008)과 이수민·김경식(2020), Noblit & Hare(1988)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연구자 및 발행 연도, 연구목적, 연구참여자 정보, 연구 방법과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기본정보를 정리하였다. 4단계에서는 연구물 간 연관 분석 및 해석으로 먼저 각개별 연구물에 나타난 상호문화소통의 주제를 파악하고 소통의 내용과 주제에 따라 메모를 달고 연구물 간 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틀



[그림 1] 분석 대상 연구물 선정과정

〈표 2〉 질적 메타분석 대상 연구목록

번호	발행 연도	연구자	제목	학술지
1	2010	김성숙 홍성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관점에서 본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가족자원경영고 정책
2	2013	김혜미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의 서비스 전달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農村社會
3	2013	이숙진 김안나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다문화 지원기관의 상호작용	가족과 문화
4	2013	봉진영 권경숙	부모교육지도사의 다문화가정 방문지도 경험의 의미 탐색	교육연구
5	2014	장영신 전경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종사자의 다문화가족 상담에 관한 경험 연구: '가족상담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6	2015	곽정임 서미아	갈등관계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서중심 상담 적용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7	2015	김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자의 실천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8	2018	이춘양 김기화	다문화가족의 난타 여가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9	2019	김은재 최현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 관리사들의 현장 실천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0	2019	이경란 류지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사 직무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정책 집행기관의 개선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1	2020	권인옥 이병권, 김 수영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소외경험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12	2020	김수정 마경희 윤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코로나 19 대응 및 과제 탐색: 센터장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13	2020	이경란 최정숙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사의 직무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	2021	서정원 민윤경	취업적응 지원사업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종사자의 역할 학습에 대한 사례연구	질적탐구
15	2022	김영순 김도경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한 자조모임공동체의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6	2022	김영순 문화진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7	2022	김영순 최수안	생성으로서의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18	2022	신혜정 최수안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관계맺기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9	2022	남정연 김영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돌봄 서비스 : 실천에 관한 의미 탐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을 마련하였다. 설정된 관계는 크게 가족센터 내 상호문화소통의 주체별로 기관운영자와 사용자, 기관사
 용자 간으로 범주화되었으며 연구물마다 그 영역을 표시하였다. 5단계에서는 개별연구물에 메모를 중
 심으로 은유나 개념을 비교 분석하며 연구물 간 유사 주제와 개념으로 묶어 범주화하였다. 6, 7단계에서는
 분석을 토대로 각 연구물이 시사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좀 더 포괄적인 은유나 개념 찾기로서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종합적인 해석과 의미를 도출하였다.

질적 메타분석은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연구자 또는 분석팀으로 연구를 수행한다(Lloyd, 2003). 본 연구는 질적 메타분석 연구 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동향 연구 및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 1인, 가족센터의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생 1인이 함께 분석에 참여하였으며 질적 메타분석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생 2인에게 분석 방법과 및 절차, 내용을 공유하고 검증 절차를 거쳤다. 분석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개별연구물을 확인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분석 대상 개별연구물 해체와 분석

본 장에서는 연구 절차의 3단계 분석 대상 연구물 읽기 및 분석을 통해 개별연구물별의 주제, 개념 등을 정리하여 연구 결과에 기술하고자 한다. 선정된 19편의 대상 연구물의 연구목적, 연구참여자, 자료수집,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분석대상 연구참여자 중 가족센터 종사자는 센터장, 방문교육지도사, 상담사, 사례관리사, 통번역지원사, 그 외 센터직원 등이 있었고 사용자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부부 등이 있었다. 가족센터 종사자는 2명에서 20명으로 총 85명이었고,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3명에서 16명으로 총 64명이었다. 따라서, 분석 대상 연구물의 총연구참여자는 149명이다. 둘째, 연구물들의 자료수집은 집단면접(FGI), 심층 면접, 이메일을 통한 서면 답과 그 외에 시청각 자료, 서류, 보고서, 현장 노트 등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연구방법은 사례연구가 16편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근거이론 1편, 해석학적 현상학 1편, 내러티브 1편이 사용되었다. 넷째, 질적 메타분석 대상 논문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가족센터(구 다문화가족센터)의 구성원들(센터의 기관운영자와 사용자)이 참여한 질적연구로 2010년 1편, 2013년 3편, 2014년 1편, 2015년 2편, 2018년 1편, 2019년 2편, 2020년 3편, 2021년 1편, 2022년 5편으로 총 19편이었다. 분석 대상 논문에 대한 기본정보는 <표 3>과 같다.

<표 3> 질적 메타분석 대상 논문의 기본정보

연번	연구자 년도	연구목적	연구 참여자	연구 방법	주요 내용
1	김성숙 홍성희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관운영자 입장에서 사업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 파악	센터직원 7명	사례연구 FGI	다문화가족의 인식과 언어치료사의 인력 부족으로 문화적 이해와 갈등 해결에 대한 지원 어려움,
2	김혜미 2013	정부의 농촌지역에서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실행 파악, 실무자들의 서비스제공 경험 탐색	센터 실무자 7명	사례연구 FGI	외국인 배우자에게 집중되어있는 사업의 부담과 한국인 가족 구성원으로 확대하는 서비스에 대한 혼란과 갈등
3	이숙진 김안나 2013	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사업과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임피워먼트 유형에 미치는 영향 탐색	총 11명 (센터 활동가 3명, 결혼이주여성 8명)	사례연구	센터의 기관운영자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사회적 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음
4	봉진영 권경숙 2013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방문서비스를 실천하면서 겪는 경험의 의미 탐색.	방문교육지도사 4명	사례연구 심층면담	결혼이주여성의 멘토가 되어주고(웃음을 찾고 소망과 꿈, 자신감을 갖도록 도움), 상담자로서 소통과 치유, 공감의 통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
5	장영신 전경미 2014	다문화 가족상담 내용과 상담자로서 역할 고찰	센터 상담종사자 10명	사례연구 FGI	통역이나 도구를 통한 상담의 어려움, 관찰과 접근 가능한 자원 활용이 도움 됨, 전문인력, 재정확보, 남성 상담사 필요
6	곽정임 서미아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정서중심 상담을 적용하고 탐색	다문화가정 부부 8쌍	사례연구	부부의 부정적 상호방식과 이면의 일차적 정서에 대한 개입

	2015				
7	김은정 20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자의 업무의 실천적 경험 탐색	사례관리사 7명	사례연구 FGI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역량부족, 네트워크의 현적 한계, 자기실천의 점검과 성찰의 기회, 실천적 지식의 축적과 성장, 조직내 지지와 협력강화 등
8	이춘양 김기화 2018	다문화가족의 여가활동 경험 탐색	결혼이주여성 5명	사례연구	다문화가족의 생활 스트레스 해소, 의사소통 증가와 상호이해증진
9	김은재 최현미 2019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들의 역할수행과 경험 탐색	사례관리사 10명	사례연구	센터 기관운영자들은 도움을 주는 위치
10	이경란 류지성 2019	가족센터 사례관리사의 직무경험을 통해 직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의 요인, 기제 탐색	사례관리사 10명	사례연구심층면담	문화민감성 실천, 타인의 삶에 대한 통찰력 증가, 자기 이해력 제고, 제도에 가려진 인간의 부활, 모성에 발현, 내삶에 대한 반추, 보수정책 및 형식에 저항 등
11	권인옥 이병권 김수영 2020	결혼이주여성 중 일부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에 있어 소외되는 현상 이해와 원인 파악	결혼이주여성 8명	사례연구	한국어 구사에 불편함을 느끼는 결혼이주여성은 프로그램 안내, 신청, 참여의 모든 단계에서 소외를 경험
12	김수정 마영희 윤성은 2020	다문화가족의 어려움, 차별, 사회적 배제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탐색	센터장 10명	세평적사례선택 ¹⁾ / FGI	온라인기반 서비스 전환이 초기에는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커뮤니티 형성, 정보교류를 어렵게 하였으나 후에는 적응하며 참여율 증가를 보이기도 함
13	이경란 최정숙 2020	사례관리사들의 직무경험 구조와 맥락 등 상호작용 탐색	사례관리사 20명	근거이론	사례관리자 및 통번역사와 다문화가족의 불협화음도 있지만 다문화가족을 위한 옹호와 이해 및 수용
14	서정원 민윤경 2021	이주여성의 사업 서비스 중 사자로서의 직업 경험 탐색	센터 통번역지원사 7명	사례연구 FGI	센터와 우호적 관계를 통한 구직, 사적 관계망과 유사 경제활동을 통한 자원정보 습득
15	김영순 김도경 2022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의 상호문화 소통 경험과 의미 탐색	결혼이주여성 6명	사례연구	이주민 간 지식의 공유와 활용, 그리고 감정 소통
16	김영순 문희진 2022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경험	결혼이주여성 5명	사례연구	자조모임 내에서의 정보공유와 한국 사회의 적응력 습득
17	김영순 최수안 2022	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을 생성의 공간으로 해석하고 분석	결혼이주여성 3명	해석현상학	주변인으로 전략과 소통의 어려움, 모임을 통해 경험을 나누고 모임 안에서 서로에게 다가가며 자신을 드러냄
18	신혜정 최수안 2022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상호 관계맺기 경험탐색	방문교육지도사 2명	내러티브심층면담	결혼이주여성과의 공존의 관계 맺기, 다문화가족 아동과의 포용적 관계 맺기.
19	남정연 김영순 2022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방문 돌봄서비스 실천에 관한 의미 탐색	방문교육지도사 5명	사례연구심층면담	인본주의적·이타적 가치 체계 형성,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수성 배양, 신뢰·희망의 돌봄관계 발전, 창조적 문제해결 과정, 교육과 학습 증진에 도움, 사회적 지지체제로 평안한 이웃이 됨

2. 상호문화소통 주체 간 분석

다음은 연구물 분석 절차로 각 분석 대상 연구물의 세부적 내용 관계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4단계 절차에 따라 개별연구물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5단계로 각 연구물 간의 연관 관계를 분석 및 해석하였다. 각 연구물의 연구참여자는 크게 가족센터 기관운영자들과 사용자들로 구분되었다. 분석 연구물

1)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은 특정 분야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유한나 외, 2022).

에서 상호문화 소통의 주체인 가족센터 구성원들의 가족센터 운영과 사용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며 각 연구물의 인용문에 나타난 세부적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센터의 기관운영자와 사용자(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간의 상호문화소통, 다음으로 기관사용자인 결혼이주성과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 간의 상호문화소통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표 4>는 상호문화소통 주체 간 분석 연구물이다.

<표 4> 상호문화 소통 주체 간 분석

연번	저자(연도)	센터의 기관운영자와 사용자	센터의 기관사용자 간
1	김성숙·홍성희(2010)	0	0
2	김혜미(2013)	0	
3	이숙진·김안나(2013)	0	0
4	봉진영·권경숙(2013)	0	0
5	장영신·전경미(2014)	0	0
6	곽정임·서미아(2015)		0
7	김은정(2015)	0	
8	이춘양·김기화(2018)		0
9	김은재·최현미(2019)	0	
10	이경란, 류지성(2019)	0	
11	권인옥 외(2020)	0	0
12	김수정 외(2020)	0	
13	이경란·최정숙(2020)	0	
14	서정원·민윤경(2021)	0	0
15	김영순·김도경(2022)		0
16	김영순·문희진(2022)		0
17	김영순·최수안(2022)	0	0
18	신혜정·최수안(2022)	0	
19	남정연·김영순(2022)	0	

<표 4>와 같이 개별연구물에서 나타난 소통의 주체는 하나 또는 하나 이상으로 나타났다. 개별연구물의 주제와 목적이 다양하여 통합적으로 분류하는 것에 제한이 있지만, 상호문화 소통의 주체인 센터의 기관운영자와 사용자가 센터 내에서 경험한 것에 주목하여 해당 내용을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가. 센터의 기관운영자와 사용자 간 상호문화소통

센터의 기관운영자와 사용자가 각 역할에서 느끼는 경험에 대한 개별연구물에서 추출된 핵심적인 개념은 서비스 인식, 상호이해, **차별 및 소외**, 소통, 성찰, 신뢰의 6가지가 추출되었고 이 개념은 갈등과 어려움, 이해와 공감의 영역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개념을 바탕으로 개별연구물 간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분석틀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센터의 기관운영자와 사용자 간 분석틀

연번	저자 (연도)	자문화중심의 인식과 태도			타자지향적 자기성찰과 상호소통		
		서비스인식	상호이해	차별 및 소외	소통	성찰	신뢰
1	김성숙·홍성희(2010)	0	0		0	0	0
2	김혜미(2013)	0					
3	이숙진·김안나(2013)						0
4	봉진영·권경숙(2013)				0	0	
5	장영신·전경미(2014)	0			0		
7	김은정(2015)	0	0			0	0
9	김은재·최현미(2019)				0		0
10	이경란·류지성(2019)						
11	권인옥 외(2020)	0	0	0	0	0	
12	김수정 외(2020)	0		0	0		
13	이경란·최정숙(2020)					0	

14	서정원·민윤경(2021)		0				
15	김영순·김도경(2022)		0	0			
17	김영순·최수안(2022)			0			
18	신혜정·최수안(2022)					0	0
19	남정연·김영순(2022)					0	

가족센터 기관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은 자문화중심의 인식과 태도, 타자 지향적 자기성찰과 상호소통으로 크게 2개의 영역으로 범주화되었으며 영역별 각 3가지의 의미가 도출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센터의 기관운영자와 기관사용자 간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의미

영역	의미	주요 내용
자문화중심의 인식과 태도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인식과 기대 차이	센터는 사용자들을 서비스 실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사용자들은 센터의 서비스 제공을 당연시함
	상호문화이해 부족	상호문화이해의 부족으로 센터구성원들의 소통은 어려워지고 센터는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
	센터이용의 차별 및 소외	일하거나 사교성 부족으로 센터 이용이 낮은 사용자는 센터 사용에 있어 배제 가능성이 높음
타자 지향적 자기성찰과 상호소통	상호이해를 위한 소통 다원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행동 및 표정 등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활용하거나 비대면을 활용한 소통
	성찰을 통한 소통 역량 증진	기관운영자와 사용자의 다문화 인식 변화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한 상호문화소통 능력을 발달시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지와 지원	사용자는 주변인의 긍정적인 정보를 통한 센터에 대한 신뢰도를 축적하여 센터를 지지하고 각 센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들을 지원

1) 자문화중심의 인식과 태도

가)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의 인식과 기대 차이

가족센터의 구성원인 기관운영자와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역할 위치에서 다른 인식과 기대를 보였다. 센터의 기관운영자는 사용자들의 한국 사회적응에 중점을 두고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사업은 가족센터의 주요한 기본사업으로 사용자들도 필요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법무부 산하의 가족센터뿐 아니라 관내 복지기관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제공하면서 중복과 과당경쟁의 문제를 발생시켰다(김성숙·홍성희, 2010). 가족센터에서는 실제 서비스 수혜자들을 생애주기별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서비스 사용자들은 출산 및 농업 등으로 적절하게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김은재·최현미, 2019; 김혜미, 2013). 이와 같은 문제들은 센터 운영 실적을 위해 의무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였고(김혜미, 2013; 이경란·최정숙, 2020), 이처럼 기관의 일방적인 교육지원 등은 사용자들의 불만을 야기 시켰다(김성숙·홍성희, 2010).

반면 센터의 기관사용자 중에는 서비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유리하게 정책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었다(이경란·최정숙, 2020). 이들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센터에게 일자리 등 끝없는 서비스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센터의 기관운영자들은 이들에게 반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높은 취업 욕구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의 부족을 보이기도 하였다(김성숙, 홍성희, 2010). 조용길(2015)은 서로 다른 문화적 관점이나 가치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량이 상호문화성이라고 하였는데 가족센터 구성원 상호 간의 다른 인식과 기대 차이는 상호 갈등의 원인이 되며 소통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상호문화이해 부족

센터의 기관운영자와 사용자는 상호 간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기관의 사업실적 목적만으로 이주민의 상황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운영하는 센터의 자조모임은 기관과 이주민의 소통을 어렵게 하였다(김영순, 김도경, 2022). 센터의 기관운영자는 사용자가 경험하는 언어적 장벽 해결을 돕기 위해 미술 활용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센터의 기관운영자와 사용자 간 문화적 요소의 다름에서 오는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였다(장영신, 전경미, 2014). 다문화가정 중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시선을 경험하면서 본인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며, 방문 서비스를 막으며 거부하는 예도 있었다(김성숙, 홍성희, 2010). 반면 센터의 기관운영자 중에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따른 교육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여 시행착오를 경험하기도 하고 일회성의 집합적 교육으로 이벤트성 행사를 많이 진행하기도 하였다(김성숙, 홍성희, 2010). 문화는 어린 시절부터 습득한 소속집단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생활하면서 획득하는 것(임은미, 구자경, 2019)으로 상호 간의 문화 이해부족은 소통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다) 센터이용의 차별 및 소외

기관사용자들이 가족센터 사용에 있어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혼인 단절 상태의 결혼이주여성, 또는 비사교적이고 센터 이용에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사용자는 센터에서 배제되기도 하였다(권인옥 외, 2020). 코로나19 같은 재난 위기 상황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사용자들을 위한 지원에 가족센터는 적극적이지 못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 및 배제가 겹쳐서 드러났다(김수정·마경희·윤성은, 2020). 센터 기관운영자들은 대체로 주류민이고 사용자들은 소수민으로 특권을 보유한 집단인 주류민에 의해 소수민은 억압과 소외를 느끼며 삶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임은미, 구자경, 2019), 연구 결과 비사교적이고 낮에 일하는 기관사용자들은 센터 이용이 어렵고 점점 센터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타자지향적 자기성찰과 상호소통

가) 상호이해를 위한 소통의 다원화

센터의 기관운영자들은 사용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기관 운영자들이 사용자들과 행동 및 표정 등의 비언어적 메시지뿐 아니라 비대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소통을 다원화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센터 상담자들은 기존의 언어적 심리검사와 도구를 활용하였을 때 언어와 문화의 한계를 경험하였기에 언어보다 비언어적 행동 기법이나 예술, 음악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였다(장영신, 전경미, 2014). 상담종사자들의 타자지향적 노력은 사용자들의 어투나 표정 등에 더 집중하며 관찰하여 소통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 실무자들은 센터의 자체 문화프로그램에서 가족통합교육 사업과 지역축제를 함께 진행하고자 하였다(김성숙, 홍성희, 2010). 상담종사자들은 사용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그들의 가족이나 주변의 인적 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사용자들의 가족이나 인적자원들은 기관운영자와 사용자들에게 구원투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김성숙, 홍성희, 2010; 김은재, 최현미, 2019; 장영신, 전경미, 2014).

나) 성찰을 통한 소통 역량 증진

다양한 센터 활동은 기관사용자뿐 아니라 운영자들의 다문화 인식을 변화시켰다(김성숙, 홍성희, 2010). 센터의 기관운영자들은 사용자들에 대한 편견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들을 폄해하고

무시하기도 하며(권인옥 외, 2020), 내, 외부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반응,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처음 가졌던 다문화사회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기도 하였다(이경란, 최정숙, 2020). 반면 센터사용자는 한국문화 중심의 교육 및 활동에 배타적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였다(김성숙, 홍성의, 2010). 그러나 지역축제나 가족통합교육 등 현장의 실천 경험은 센터의 기관운영자들과 사용자들 간 정서적 공감을 이룰 수 있게 하며 인식의 변화도 끌어냈다. 센터의 기관운영자들은 다문화가족을 소수자로서 보호하며 인간으로서의 격려를 보냈다(이경란, 최정숙, 2020).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통한 상호소통은 가족센터 구성원이 상호 간 가졌던 편견을 바꾸며 서로를 이해하게 하였다.

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지와 지원

센터의 기관운영자와 사용자들은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기관운영자들은 사용자들에게 적합하고 유용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사용자들은 적극적으로 센터 활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사용자들은 그들 주변 또 다른 다문화가족 또는 이주여성에게 센터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주는 것으로 센터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또한 각 센터의 기관운영자들 역시 더욱더 다양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사용자들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센터의 방문 교사와 대상자들 간의 지속적 신뢰와 긍정적 관계 형성은 사용자들이 센터를 오게 하였다(김성숙, 홍성희, 2010). 센터구성원들 간의 믿음은 상호 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감을 통해 지지와 지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센터의 기관사용자 간 상호문화소통

기관사용자, 즉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다문화가족, 그리고 결혼이주여성과 결혼이주여성 간 경험에 대한 개별연구물에서 추출된 핵심적인 개념은 관계, 자존감, 주체성, 임파워먼트, 연결망, 탈출의 6가지로 추출되었고, 이 개념은 회복, 성장, 협력의 영역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개념을 바탕으로 개별연구물 간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분석틀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센터의 기관사용자 간 상호소통 분석틀

연번	구분	회복		주체성		협력	
		관계	자존감	능동성	임파워먼트	연결망	탈출
1	김성숙·홍성희(2010)	0		0		0	0
3	이숙진·김안나(2013)	0	0	0	0	0	
4	봉진영·권경숙(2013)					0	0
5	장영신·전경미(2014)				0		
6	곽정임·서미아(2015)	0				0	0
8	이춘양·김기화(2018)	0	0			0	
11	권인옥 외(2020)						0
14	서정원·민윤경(2021)					0	
15	김영순·김도경(2022)	0	0	0	0	0	0
16	김영순·문희진(2022)		0	0		0	
18	김영순·최수안(2022)	0	0	0		0	0

<표 7>은 기관사용자 간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은 상호문화 공감과 회복, 주체적 성장, 그리고 연계를 통한 상호협력으로 크게 범주화되고 각 2가지씩의 개념이 분류되었다. 회복, 성장, 협력의 세 가지 영역 중 협력에서 긍정적 연결망 개념은 11편의 논문 중 9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물에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센터의 기관사용자 간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의미

영역	의미	주요 내용
상호문화 공감과 회복	공감을 통한 관계의 어울림	문화적 갈등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관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문화적 자존감의 회복	상호 인정과 지지 및 존중으로 성취감 경험
주체성 획득과 성장	능동적 사회참여자가 됨	수혜적 대상에서 자발적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주체성 획득
	공동체의 목소리를 냄	경험의 공유는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함
연계를 통한 상호협력	긍정적인 연결망 형성	친밀한 관계 형성은 사회 적응력을 높임
	고립과 배제에서 벗어남	하나의 활동 참여는 다른 활동 참여의 동력이 됨

1) 상호문화 공감과 회복

가) 공감을 통한 관계의 어울림

결혼 이주 여성들은 센터 내 자조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가 경험하는 문화적 갈등을 공유하고 문화를 공감하며 부부관계, 고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관계적 문제를 이해하고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한국인 남편과 문화적 다름으로 발생한 문제들도 사용자들 간의 이야기 나눔으로 문제들을 객관화하고 이해하면서 풀어낼 수 있었다(김영순, 김도경, 2022). 고부 관계로 어려움을 경험한 이주여성의 경우 센터 활동과 센터의 지원으로 가족들의 신뢰가 증가하면서 가족들로부터 문화의 다름을 이해받게 되었다(김성숙, 홍성희, 2010; 이숙진, 김안나, 2013). 또한 다문화가족은 센터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은 그들의 친밀감과 상호이해 증가시켰고 가족 간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졌다(이춘양, 김기화, 2018).

나) 문화적 자존감의 회복

사용자 간의 인정, 지지 및 존중은 그들에게 도전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며 긍정적 자아감을 형성하게 하였다(김영순, 문희진, 2022; 김영순, 최수안, 2022; 이숙진, 김안나, 2013). 사용자들은 문화공연 등 함께 하는 상호 간 문화적 나눔 활동 및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또한 센터 내의 모임 및 다양한 활동으로 그들은 각자 내면의 힘과 능력을 발달하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였다(김영순, 김도경, 2022; 이춘양, 김기화, 2018). 특히 센터에서 배운 한국어로 이주민들 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면서 사용자들은 자존감이 증가하며 센터 참여 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었다(김영순, 문희진, 2022).

2) 주체성 획득과 성장

가) 능동적 사회참여자가 됨

센터의 서비스 수혜자였던 사용자들은 서로 간 개인적 나눔을 통해 소통하며 감정을 해소하였고, 자신감도 얻어 센터 내 프로그램 및 모임의 주체가 되어 활동을 이끌어 갔다. 사용자들 간 형성된 관계망으로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서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스스로 주체자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이숙진, 김안나, 2013). 또한 이들은 통번역 자원봉사와 지역주민센터의 소속되어 자발적으로 활동하며 이주민이 더 이상 수혜적 대상이 아닌 주체적 대상임을 보였다(김영순, 김도경, 2022; 김영순, 문희진, 2022).

나) 공동체의 목소리를 냄

기관사용자들은 그들 간에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주체적 역량을 발전시켰다. 임파워먼트는 개인, 가족, 집단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 역량을 획득하는 능력(Gutierrez et al., 2006)으로 차별과 무력감에 놓여있던 사용자들이 그들 간 상호 소통 활동으로 각자가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삶의 주체적 존재로 성장하게 하였다(이숙진, 김안나, 2013). 또한 이들은 가족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힘도 키우게 되었다(김영순, 김도경, 2022; 장영신, 전경미, 2014). 또한 이들은 남편과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나아가 공동체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대인관계 차원의 임파워먼트 향상으로 자신들의 권리주장에 앞선 모습을 나타냈다(이숙진, 김안나, 2013).

3) 연계를 통한 상호협력

가) 긍정적인 연결망 형성

센터 내 사용자들이 모임 활동 안에서 서로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며 긍정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조모임 내에서 자격증 및 취업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자녀교육 문제, 시댁 갈등 등의 고민을 공유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김영순, 문희진, 2022; 서정원, 민윤경, 2021). 또한 이주여성들 간의 관계망 구축은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며 객관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하였다(이숙진, 김안나, 2013). 즉 관계 속에서의 나눔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하고 자신이 수용되는 경험을 하게 하며 문화 적응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 또한 센터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한 선(先) 사용자들은 또 다른 활동의 주체가 되어 후(後) 사용자들을 도와 긍정적 연결망을 구축하였다.

나) 고립과 배제에서 벗어남

기관사용자들의 연결망은 개인의 사회적 고립과 제도 및 서비스 배제에서 탈출하게 하였다. 센터의 사용자는 결혼 이주민 여성과 다문화가족으로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 지위에 놓이곤 한다(권인옥 외, 2020). 한국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혼, 사별, 별거 등의 상태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센터 이용이 어렵고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김성숙, 홍성희, 2010; 권인옥 외, 2020). 하지만 센터의 이용으로 긍정적 경험을 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주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센터를 소개하며 그들과 공동체를 형성해간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경험 공유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존감을 형성하였고, 스스로 사회의 차별과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의 차별적 시선을 경험한 다문화가족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두려워하였지만, 센터 활동에 참여한 가족들은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각자 긍정적 자기 상을 형성하며(곽정임, 서미아, 2015) 서로에게 지지의 대상이 되어주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가족센터 구성원(기관운영자, 사용자) 간 상호문화소통 경험에 주목하여 상호문화소통에 대한 개별연구를 질적 메타분석을 하였다. 19편의 개별연구물에서 도출한 상호문화소통 경험 결과는 기관운영자와 사용자 간에서 ‘자문화중심의 인식과 태도’, ‘타자지향적 자기성찰과 상호소통’의 2가지 영역과 6가지 의미, 그리고 기관사용자 간에서는 ‘상호문화 공감과 회복’, ‘주체성 획득과 성장’, ‘연계를 통한 상호협력’의 3가지 영역과 6가지 의미가 나타났다. 그동안 다문화사업에 대한 논의는 각각 가족센터의 기관운영자, 종사자, 실무자의 시각과 가족센터의 사용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의 시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교육 및 상담 관련 전문인력과 실무인력의 기관운영자와 가족센터 를 통해 다양한 교육 혜택과 조력을 얻는 다문화가족이 기관사용자로 함께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 족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관련 질적 연구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해석과 논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상호문화 소통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센터의 기관운영자와 사용자는 자기중심적인 문화 인식과 상호소통으로 갈등과 소통의 어 려움을 경험하였다. 구성원들은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의 역할 위치에서 상호 간 문화이해 부족으로 서로 다른 인식과 기대 차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사용자는 차별 및 소외를 경험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주류집단보다는 소수집단이 더 많은 변 화와 그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Berry, 2006)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센터의 기관운영자와 사용자 간에 자기성찰과 타자지향적 상호대화는 서로 간 이해와 공감을 이루게 하 였다. 무엇보다 센터의 기관운영자들이 사용자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을 때, 사용자들과의 소 통 방법은 다원화가 되었고, 센터의 다양한 문화적 활동은 기관사용자뿐 아니라 센터의 기관운영자가 가지고 있었던 다문화 인식에 대한 변화를 이루었다(권인옥 외, 2020; 김성숙, 홍성희, 2010; 김수정 외, 2020; 김은재, 최현미, 2019; 장영신, 전경미, 2014).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센터 기관운영자와 사용자는 서로에게 신뢰감을 가지며 사용자는 센터 활동에 적극적 참여함으로 센터 운영에 지지를 보였고 센터의 기관운영자들은 사용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고자 하였다. 가족센터는 구성원들 간 상호 문화소통역량이 작동되는 실천행위의 공간(김영순, 최유성, 2020)으로 Sinicrope 외(2007)가 언급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인 상호문화소통을 확보할 수 있는 장(場)이다. 상호 간의 문화인식과 소 통은 기관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감으로 이어지고 기관사용자는 센터 운영에 지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관사용자들 간 소통의 장(場)을 마련해주는 것은 그들이 기관운영자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더 넓혀 주는 역할을 한다. 기관운영자의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은 기관사용자 공동체 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며 가족센터가 구성원들의 공동 연대의 장(場)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과 수혜의 장(場)을 넘어 기관구성원들의 공동 연 대의 장(場)이 되기 위해서는 기관운영자들의 사용자들 문화에 대해 인식과 그들과의 소통을 위한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기관사용자들은 그들 간의 상호문화 공감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였는데 사회에서 경험하는 문화 적 갈등을 서로 간 공유하고 공감하며 부부관계, 고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관계적 문제를 객관화시 키며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용자들 간의 지지 및 존중은 도전하게 하고 성취감을 경험 하게 하며 긍정적 자아감을 형성하게 하였다. 그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주체적 역량을 발전 시키며 성장하였는데, 서로 간 개인적 나눔을 통해 감정 해소와 소통을 경험하며 자신감을 얻고 주체적 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이끌었다(김영순, 김도경, 2022; 김영순, 문희진, 2022; 이숙진, 김안나, 2013; 장영 신, 전경미, 2014). 그들은 센터 활동을 통해 개인적 발전뿐 아니라 공동체적 연계를 통한 협력의 모습을 보였으며, 무엇보다 서로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며 긍정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적 응력을 높였다. 그리고 이들의 연결망은 개인의 사회적 고립과 제도 및 서비스 배제에서 탈출하게 하였 다. 이숙진, 김안나(2013)는 이들의 이러한 능력은 다양한 지역사회 집단에 활동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 결하고 사회적 제도나 환경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같이 가족센터는 기관사용자들이 단 지 서비스의 수혜자에 머무르는 게 아닌 주체자가 되게 하는 장(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센터는 기관사용자들의 개인적 성장뿐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 발달을 위한 주체적 장(場)이 될 수 있도록 그들 을 위한 주체성 향상 교육과 그들 간의 체계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 가족센터는 기관운영자와 사용자 간 협력을 통한 상호문화소통 실천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운영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문화소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상호문화성은 문화간 접촉과 만남을 통해 형성되는 문화의 변화와 상호 융합의 현상과 가능성이다(박인철, 2017). 상호문화소통은 상호문화성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문화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 간에 접촉과 교류를 통해 상호교환과 이해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공감과 포용, 이해와 관용이 필요하고 동시에 비판적으로 표현할 때 가능하다(김영순, 김도경, 2022).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사용자들 간의 상호문화소통에 관심을 가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권인옥 외, 2020; 김영순, 김도경, 2022; 김영순, 문희진 2022; 이춘양, 김기화 2018). 하지만 상호문화 소통의 실행은 가족센터의 구성원인 기관운영자와 기관사용자의 만남, 그리고 기관사용자들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것은 서로 간의 이해와 공감, 그리고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상호문화성을 바탕으로 기관 내 구성원들 간에 상호문화소통을 실천할 수 있는 소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먼저 연구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인 센터의 기관운영자인 통번역지도사, 언어 강사이며 기관사용자인 자조모임의 리더로 이중적 역할을 하는 예도 있었다. 이에 이들 역할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관한 연구물은 따로 구분하여 기관 기관운영자이며 사용자로 이중역할을 수행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경험하는 센터와의 소통과 이주여성들과의 소통을 상호문화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가족센터가 좀 더 다양하고 적절하게 기관구성원들의 역할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기관사용자는 성인이었다. 현재 가족센터의 많은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연구참여자로서 가족센터에서 어떠한 상호문화소통을 경험하는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족센터 기관운영자와 기관사용자인 다문화가족 자녀들 간의 상호문화 소통 경험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족센터 구성원 간 상호문화소통 경험에 관해 연구의 질적 메타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가족센터 내 구성원 간 상호문화소통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다문화사회 상호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자료수집과 분석은 Noblit & Hare(1988)의 7단계 연구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분석 대상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등재 혹은 등재후보지에 발간된 질적연구 19편이다. 개별연구물의 내용을 분석하여 가족센터 기관운영자와 사용자, 기관사용자 간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내용으로 분류하였으며 주제 및 개념을 범주화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 첫째, 기관운영자와 사용자 간 상호문화소통 경험은 '자문화중심의 인식과 태도', '타자지향적 자기성찰과 상호소통'의 2개 영역과 6개 범주로 도출되었다. 둘째, 기관사용자 간 상호문화소통 경험은 '상호문화 공감과 회복', '주체성 획득과 성장', '연계를 통한 상호협력'의 3개 영역과 6개 범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 가족센터 구성원들 간의 상호성장을 위한 상호문화소통 실천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가족센터, 기관운영자, 기관사용자, 상호문화소통, 질적 메타분석

참고문헌

갈라노바 딜노자 (2018). 제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
- 갈라노바 딜노자, 김영순 (2021).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경험한 상호문화소통의 공간별 의미 탐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3), 65-87.
- 강기정, 이무영 (2011). 다문화가족상담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6(3), 225-245.
- 강기정, 이무영 (2013).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2), 149-171.
- 강비아 (2019).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현황과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정임, 서미아 (2015). 갈등관계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서중심 상담 적용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8), 157-223.
- 권인옥, 이병권, 김수영 (2020).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소외경험.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2(2), 41-73.
- 김기화(2022).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활동 경험 연구: 상호문화실천과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IDI도시연구**, -(21), 45-89.
- 김성숙, 홍성희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관점에서 본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4(2), 35-58.
- 김수정, 마경희, 윤성은 (20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코로나19 대응 및 과제 탐색 : 센터장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58, 245-271
- 김승일 (2019).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순, 김도경 (2022).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한 자조모임 공동체의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5(2), 5-37.
- 김영순, 문희진 (2022).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중인문학연구**, 75, 95-119.
- 김영순, 최수안 (2022). '생성'으로서의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61(1), 127-174.
- 김영순, 최승은 (2016). 상호문화학습의 실천적 내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어와 문화**, 12(2), 1-27.
- 김영순, 최유성 (2020). 사회통합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소통 탐색. **현대사회와 다문화**, 10(4), 91-126.
- 김유정 (2021).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강원법학**, 63, 35-85.
- 김은재, 최현미 (201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 관리사들의 현장 실천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0(33), 121-152.
- 김은정 (20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자의 실천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3), 5-34.
- 김중대 (2013). 사진치료를 통한 다문화사회의 상호문화소통에 대해. **철학과 문화**, 26, 77-96.
- 김태원 (2012).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유럽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탐색. **유럽사회문화**, 9, 179-214.
- 김혜미 (2013).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의 서비스 전달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경상북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23(2), 225-270.
- 나장함 (2008). 장애인의 직업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질적 메타분석의 적용과 이슈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18(2), 135-158.
- 남정연, 김영순 (2022).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돌봄 서비스 : 실천에 관한 의미 탐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2), 179-205.
- 문정희 (2019). 다문화정책서비스 질의 영향요인: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1), 47-79.
- 박상욱, 함은혜, 이은영 (20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의 지역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7(3), 435-454.
- 박인옥 (2022). 상호문화주의 관점에 기초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분석.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6), 1-21.
- 박인철 (2017). 상호문화성과 동질성. **고기토**, -(82), 34-69.
- 박현주 (2020). 한국어 교육에서의 상호문화 교육내용 개발 연구: 한국어 교사 교육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운정, 박지선 (202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대면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사례분석 : '부자유친 프로젝트' 아버지·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0(11), 209.
- 봉진영, 권경숙 (2013).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다문화 지원기관의 상호작용. **가족과 문화**, 25(2), 234-269.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혼혈인 등 소수의 사회통합지원방안**.
- 서정원, 민윤경 (2021). 취업 적응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종사자의 역할학습에 대한 사례연구: 수도권 북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질적탐구**, 7(3), 491-529.
- 손병돈 (2014).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대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및 이용 결정 요인. **보건사회연구**, 34(4), 354-384.

- 신용식 (2021). "상호문화적 다문화교육의 철학적 근거 모색 : 현상학과 의사소통행위 이론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정, 최수안 (2022).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관계맺기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5), 149-174.
- 오연주 (2018).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7(3), 79-99.
- 유한나, 권소일, 신수민 (2022).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구매시장 역량 강화 사례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15(2), 37-64.
- 여성가족부 (2021). **2021년 가족사업안내(I)**.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이경란, 류지성(201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사 직무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정책 집행기관의 개선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 연구**, 12(2), 35-83.
- 이경란, 최정숙 (2020).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사의 직무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2(1), 161-218, 329-362.
- 이수민, 김경식 (2020). 교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실천에 관한 질적메타분석. **교육사회학연구**, 30(1), 143-177.
- 이숙진, 김안나 (2013).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다문화 지원기관의 상호작용. **가족과 문화**, 25(2), 234-269.
- 이춘양, 김기화 (2018). 다문화가족의 난타 여가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8(2), 123-147.
- 이현아 (20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버지참여 프로그램 효과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10(2), 143-175.
- 이현아 (2022). 지역사회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참여와 아버지 삶의 변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 아버지에 대한 FGI 분석.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1), 1-14.
- 임은미, 구자경(2019).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학지사.
- 장영신·전경미 (20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종사자의 다문화가족 상담에 관한 경험 연구-'가족'상담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3(1), 109-131.
- 조용길 (2015). '상호문화성 Interculturalität' 배양을 위한 토론교육 방안. **獨語教育**, 62(62), 81-102.
- 최새은, 김미영, 손서희 (2020).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용자의 통합서비스 이용 경험 연구: 혼합방법론 접근. **가정과삶의질학회**, 38(3), 99-116.
- 최수안·김영순 (2021). 한부모 이주여성의 자립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여성학연구**, 31(1), 7-40.
- 최지은 (20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개선방안.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중천·오영훈 (2021). 외국인 노동자와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사례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1), 83-102.
- Adams, M. , Blumenfeld, W., Castaneda, C. R., Hackman, H. W., Peters, M. L. and Zuniga X. (2013). *Readings for diversity and social justice* (3rd ed), NY: Routledge.
- Berry, J. W.(2006). *Acculturative stress*. In *Handbook of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stress and coping*. Springer, Boston, MA.
- Gutierrez, L., R. Parsons, E. Cox. (2006). **사회 복지실천과 역량강화**. 김혜란 외(역). 서울:나눔의 집.
- Lloyd, J. M.(2003). *Application of systematic review methods to qualitative research: Practical issu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8(3), 271-278.
- Noblit, G. W, and Hare, R. E. (1988). *Meta-ethnography: Synthesizing qualitative studies*. C. A.: Sage.
- Paterson, B. l., Thorne, S. E., Canam, C., and Jilling, C.(2001), *Meta-study of qualitative health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Rey, M., (1986). *Former les enseignants à l'éducation interculturelle?*, Strasbourg: Conseil de l'Europe.
- Walsh, D., and Downe, S.(2004). *Meta-synthesis method for qualitative research: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0(2), pp. 204-211.

